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曺 点 煥

韓國敎會의 새신자 敎育 改善 方案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betterment plan of the new believers' education of the Korean Church

1998年8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敎 育 行 政 學 科
敎 育 行 政 專 攻
金 相 棋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敎授 曺 点 煥

韓國敎會의 새신자 敎育 改善 方案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betterment plan of the new believers' education of the Korean Church

위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１９９８年８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敎 育 行 政 學 科
敎 育 行 政 專 攻
金 相 棋

金相棋의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1998年 8 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목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내용 3

4. 연구의 방법 3

5. 용어의 정의 4

Ⅱ. 이론적 배경 6

1. 새신자 교육의 의의 6

2. 새신자 교육의 목표 와 내용 12

3. 새신자 교육의 원리 16

4. 새신자 교육의 방법 17

5. 선행연구의 고찰 23

Ⅲ. 성서속의 새신자 교육 고찰 25

1. 구약 시대의 새신자 교육 25

2. 신약시대의 새신자 교육 32

3. 사도시대의 새신자 교육 42

4. 과거교회 후기 시대의 새신자 교육 52

Ⅳ. 과거교회와 현대교회의 새신자 교육 비교 54

1. 교육 과정 54

2 교육 내용 57

3. 교육 방법 60

Ⅴ. 한국교회 새신자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62

1. 한국교회의 새신자 교육의 실태 62

2. 한국교회 새신자 교육의 제문제 88

3. 새신자 교육의 개선점 모색 93

Ⅴ. 요약 및 결론 97

1. 요약 97

2. 결 론 99

참고 문헌 101

ABSTRACT 106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지 1세기가 지난 오늘 한국교회는 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 기독교 신자로 증가하였으며 매년 13~15% 성장율을 보여 왔다. 이것은 인구 증가율 2%보다 600~700% 앞서는 것이다. 또한 1970년대 중반부터는 연간 4000여 교회가 설립되고 있는 데 이것은 하루 10개 교회가 탄생하는 경이적인 부흥을 이룩하였다.[1] 현재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폭발적인 성장,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 그리고 가장 열성적인 신자들로 세계교회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격려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선교사는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부흥을 일컬어 현대 선교사상 가장 위대한 드라마의 하나라고 말했다.[2]

한국교회가 이토록 급성장하게 된 배후에는 그 동안 복음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개의치 않던 순교자들과 수많은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의 지속적인 복음 운동과 오순절 운동의 거센 열풍 그리고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성장의욕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가난과 질병 그리고 사회적 불안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오히려 교회 성장의 요인이 되었다.[3]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은 마치 제멋대로 쌓아올린 벽돌더미와 같이 지극히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한국 교회 현실을 가져오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양적 팽창주의는 교회적인 혼란과 신앙의 저질화를 가져다줌으로써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흥을 비판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4]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체적인 실정을 살펴보면

---

1) 이은봉, "한국교회 새세기 맞다", 월간 정경문화, 1984, 2, P.197.
2) Neil Brown, Laity Mobilization, Chicago: Moody Press,1980, p.197.
3)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서원 출판사, 1984, p.25.

매주 교회를 찾아오거나 또한 인도되어 오는 사람들의 수효는 많지마는 몇 달 혹은 일년을 결산하여 볼 때 신자의 실제적인 증가는 별로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5]

근년에 이르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되어 들어오고 있지마는 문제는 그 새로 들어온 신자들을 잘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그들에게 대한 교회의 교육적인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도로서 성장하는 새신자들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6]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만 하여도 교회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개인 전도의 열심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욱 심각한 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곧 오늘날 대부분의 개 교회들이 효율적인 새신자 육성 관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에 따라 교인들의 질적인 성장은 물론 양적인 성장에도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룬 이 값비싼 부흥을 헛되이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교회의 주역이 될 새신자들의 교육이 절실하다. 아울러 목회자들도 여러 교육분야의 사역 가운데 우선 순위 제1의 자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목회하면서 고민하는 문제 중의 하나로 새신자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회의 양과 질적 성장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다.

---

4) Ibid., pp.25~26.
5) 박무종, 「개인전도의 이론과 실제」,서울:소망사,1979, pp.188~189.
6) B.모어,웨이트,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정학봉 역, 서울:요단출판사, 1978, pp.22~23.

첫째. 새신자를 바르게 교육함으로써 건전한 교회 성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둘째. 성서 속의 새신자 교육을 고찰해 봄으로써 제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신자 교육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셋째. 과거교회 새신자 교육과 현대교회의 새신자 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상호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교회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새신자 교육을 규명하고 그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3. 연구내용

최근 들어서 한국교회의 성장 둔화와 정체로 인하여 목회의 위기 의식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이 새신자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부분적인 연구 결과들이 소개되고 있다. 1차 자료인 성서를 깊이 들여다 보면 새신자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하였으며 부모가 교사로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뿌리가 되었다. 그 후 사회 현상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교육 내용도 율법, 토라, 제의식등이 추가 되었으며 교육 방법도 선지자, 랍비, 성전, 회당 중심으로 변화된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는 그 모습 속에 새신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가 초대교회의 새신자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비교해 봄으로써 문제점을 찾아내어 한국교회 새신자 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4. 연구의 방법

1)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 수행한다.

2) 본 연구는 한국교회 새신자 교육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성서와 기존 문헌 및 관련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3) 본 연구는 참고 서적과 여러 가지 학술 서적을 수집 정리 수행한다.

4) 본 연구는 연구자의 다년간의 목회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의 토대위에 새신자 교육을 수행한다

.

5. 용어의 정의

이 논문을 전개해 나가기 전에 먼저 인 논문에서 취급되는 가장 중요한 용어 새신자와 교육이라는 두가지를 분명히 정의하고자 한다.

1)새신자

새신자라는 말과 새교우라는 말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새교우라하면 그가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든 혹은 오래 믿어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든지를 불문하고 새롭게 교회에 등록한 등록교인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새신자는 교회에 등록한 새교우 중에서도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낙심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새신자라는 말보다 초신자라는 말이 더 타당할 것이다. 7)

Gary W. Kuhne는 새신자를 정의하기를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로(요3:3,고전3:1 벧전2:2,용리2:12-14) 성장초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부모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다. 8)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교회에 등록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도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나 신앙심이 깊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신앙은 있지만 타교회

---

7) 김동호, "새신자 고나리와 육성을 위한 교회행정",교육교회, 1984년 3월호,p.151.

8) Gary W. Kuhne, 「개인적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 서울 요단 출판사,1995, p.1021.

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주를 하였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새롭게 등록한 교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교육

최근 기독교 교육사를 보면 교육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다른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들 몇가지를 들면 교육(Education),양육(Nurture)과 육성(Follow) 등이 있다. 교육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양육은 기독교 교육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육성은 교회성장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와같은 용어들은 약간의 용어상 차이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새 신자 교육의 의의

1) 새신자 교육의 의의

새신자 교육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낱말이다. 이 낱말의 원 뜻은 사람이 어떤 사업을 벌려 놓고 그 뒤를 수습하여 그 사업의 결실을 얻게 한다는 일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의 사후관리라는 뜻이 있는 말이다. 이 낱말이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기는 하지만 기독교가 전도사업의 결실로 얻어진 새로운 신자들을 다루는 일로서 그 새로운 영혼들을 성숙하게 자라게 하는 것, 곧 그 영혼들을 교육하는 일이기 때문이다.[9]

새신자 교육이란 낱말을 여러 가지 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에서 추적 전도라고 번역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번역은 원어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가겠지만 글자만 보는 사람들은 이해가 힘든 낱말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새신자 육성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을 키우는 일에는 교육이라는 낱말을 쓰지만 육성이란 말은 재단이나 기관을 키우는데 사용하는 낱말이기 때문에 영혼을 성장 시키도록 그 영혼을 교육시키는데는 적합한 낱말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낱말의 참 뜻은 전도의 결실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새신자 교육이 제일 적합한 낱말일 것이다.[10] 예수님의 지상 명령(The Great Commission)에 따라 열심히 전도하여 얻은 전도의 열매로서의 새로운 신자들을 그대로 두면

---

9) 정학봉, 「성서적 제자훈련학」, 서울:요단 출판사, 1985, p.133.
10) Wayon B, Moore,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정학봉 역, 서울:요단출판사,1975,p.15.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없음을 교회나, 먼저 성숙하게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에 새신자들을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키워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새신자들이 성숙하도록 성장하게 보살피고 도와 주는 일을 하는 것을 "새신자 교육"이라한다.[11] 한편 쿠네는 그의 책 '새신자 교육의 원동력'에서 새신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새신자 교육이란 믿음 안에서 새신자을 대상으로 한 영적인 일"이라고 정의하였다.[12]결국 새신자 교육이란 전도의 열매를 보존하고 성숙하게 하며 번식시키는 것이다. 구원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성경에서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13]

또한 새신자 교육의 성경적인 의미로서 정의해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를 생산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훈련하여 그의 모든 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품성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신자들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들임으로 사도 베드로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14]고 말씀하심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탄생한 새신자는 영적으로 성장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15]을 강조하심으로 그리스도안에서의 어린아이와 같은 새신자들은 먼저 신앙생활에서 성숙해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지도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

11) Way B. Moore, op. cit., p.15.
12) Kuhnue W. Gary, 「개인적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역, 서울요단출판사, 1995, p.19.
13) Waylon B. Moore, op,cit, p.15.
14) 베드로 전서 2:2.
15) 히브리서 5:12.

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16]고 제자들을 가르칠 것을 강력하게 지상명령을 내리셨다. 이렇게 영적인 "간난아이에게 신령한 젖을 공급"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 새신자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임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분부"를 지켜서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새신자 교육을 받은 한 영혼인 사도 베드로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거라"[17]고 권면하신 대로 성숙하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즉 새신자 교육은 새신자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아울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18]

지금까지 용어의 정의와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서 새신자 교육의 의의를 두 가지 (교회 구성원이 되는 길, 신앙성장 과정의 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A. 교회 구성원이 되는 길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면 먼저 학습교육을 받고 학습교인이 된다. 학습 교인이 된 후 6개월이 경과되어 세례교육을 받고 세례교인이 된다. 세례교인이 되면 피선거권을 가지며 교육을 통하여 적합한 부서에서 교회에 봉사 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B. 신앙성장 과정의 길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한 후 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

16) 마태복음 28 : 18-20.
17) 베드로후서 3:18.
18) 유의웅 "새신자 목회의 실제" 새신자 목회Ⅱ, 이용남편, 서울:도서출판 임마누엘미디오, 1993,P.24.

(마 16:16) 지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단계에 까지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여기서 A와 B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크게 4종류의 새신자 교육체계가 있을 수 있다.

첫째, A만 있고 B가 없는 경우이다.

이것은 생명력이 상실된 정통주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새신자에 대한 교회의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일 뿐이다. 이 경우는 사실 새신자는 있으나 새신자 교육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교리문답이나 교리교육을 한다고 이 부류에 속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는 사람의 뼈대와 같아서 그것 없이는 다른 신앙 성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 만으로는 불충분한 것이 사실이다.

둘째, B만 있고 A는 없는 경우이다.

이런 모습은 교회보다 선교단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교회관이 약하다고 일부 비판받는 네비게이토, UBF, CCC등 신앙성장에는 주력하지만 교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에 관심이 부족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력있는 새신자 교육이 강조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셋째, A와 B가 모두 있으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교회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과 신앙성장의 과정이 구별되어 존재하는 이원 체계의 형태하고 할 수 있다. 새신자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나 아직 교회 전체가 교육체계로 구조화 되지 않은 생태의 과도기적 모습일 것이다.

넷째, A와 B가 일치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초대 교회의 새신자 교육 체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신앙성장의 과정이 곧 교회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이요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은 신앙성장을 의미하는 체제이다. 교회 전체가 신앙공동체로서의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교회됨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체계요 이상적인 교육의 의의가 되는 것이다.

2) 새신자 교육의 성립

하나님께서는 새신자에 대하여 관심이 크시고 중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9)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영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20)고 하셨으며,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1)고 하셨다. 그런데 힘겹게 얻은 새신자를 교육하지 못함으로 쉽게 잃어버린다면 정말 그 책임이 막중할 것이다. 이러므로 잃어버린 양이 개심하고 돌아선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계속 성장할수 있도록 잘 보존되어져야 한다. 22)

교회의 본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명이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23)고 말씀했고, 또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

---

19) 누가복음 15:3-7.
20) 누가복음 19:10.
21) 마태복음 28:20.
22) C . B. 어리트, 「기본전도학」 ,정진황역, 서울:침례교회출판사, 1971, p.171.
23) 요한복음 10:10.

할 자이심이라" 24)라고 주장했다. 잃은 양을 찾고 난 후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은 양 한 마리의 귀중성을 의미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5)고 했듯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잃은 양을 찾음은 정말 즐거워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예화가 나타나 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와, 찾았다는 이야기와, 즐거워했다는 이야기이다. 이와 같이 인간은 모두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이다. 성경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26)고 말씀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게오는 돈이 많았고 권세가 있었지만 그는 "잃어버린 자" 27)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교회의 기능 중에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처럼 "들개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28) 와 교인들과 새신자들을 작 먹여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 욥기에도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괘념치 아니하나니" 29)라는 말씀과 같이 새신자들을 돌보지 않고 무관심해서는 안

---

24) 마태복음 1:21.
25) 마태복음 16: 26.
26) 이사야 53: 6
27) 누가복음 19: 10.
28) 예레미아 애가 4: 3-4.

된다. 찢어진 그 물로 물고기를 잡는다고 그물과 같지 않은가. 왜냐하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통계상 많은데 결국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들의 모습이다.

Waylon B, Moore박사는 전도와 교육은 마치 기차길의 두 궤도와 같이 동시에 중요한 것이다.[30]고 했는데 참으로 교회는 새신자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예수님의 명령과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새신자 교육의 목표 와 내용

1) 새신자 교육의 목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을 하실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심을 할 수 있다. 그 목표는 주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다.

목표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추진력의 하나이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므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새신자 교육에서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게리 W.쿠네는 새신자 교육의 목표를 다음 6가지로 수립하였다.

(1)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서는 것 (롬 5:1, 10:14-17,엡 2:8)

(2) 기본적인 원리에 굳게 서는 것 (기도, 교제, 말씀, 증거)

---

29) 욥기 39 : 13-16.

30) Waylon B. Moore, op. cit., p.19.

(3) 기본적인 교리로 완전함을 얻음 (엡 4:14)

(4)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5)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립적으로 응용하고 은혜를 받게 됨

(6) 다른 사람의 생활에서 처음 목표들이 재생산 되도록 함

이 같은 목표하에서 새신자 교육의 단계를 크게 두 가지 (영적 유아 단계, 제자 훈련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쿠네는 말하였다.

한편 새신자 교육을 위한 목표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

(1) 제1단계 - 구원의 확신

(2) 제2단계 - 신앙의 성숙

(3) 제3단계 - 제자의 삶을 살게 함

결국 새신자 교육의 목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엡4:15)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 즉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과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데 그 목표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한다.

2) 새신자 교육의 내용

교육의 목표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교육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새신자 교육의 내용이 바로 신자의 자질과 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신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교과 내용과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바람직한 새신자 교육을 위하여 먼저 세 분야로 구분하여 본다.

(1) 신앙적인 분야

신앙적인 분야는 새신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갈 수 있도

록 개인적 새신자 교육의 주제이다. 그 주제는 중생, 구원의 확신, 묵상, 기도, 성경(암송,공부), 신앙고백, 시험 극복, 성령, 순종, 훈련, 습관, 인도, 청지기 직분, 교회이다. 31)

(2) 교리적인 분야

교리적인 분야는 새신자의 삶의 현장에서 지식과 관련하여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을 전해 주도록 훈련하는 개인적인 새신자 교육의 주제이다. 그 주제는 성경교리, 조직적인 성경지식, 기독교 변증학, 상담이다. 32)

특히 새신자 교육에 있어서 교리적 지식 전달은 필요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교리 전수가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것도, 교회사회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리 전수는 새신자 교육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다. 33)

오늘날 교리교육은 진부한 것, 케케묵은 전통적인 것으로 오해하여 이를 무익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교리적 체계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새신자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첫째, 교리란 신앙과 행위의 표준인 성경을 종합하고 체계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떤 곳에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 받는다고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 교리란 이런 복잡하고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성경의 내용들을 공인된 교회의 감독 하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올바른 해답을 제시하는 성경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사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

31) Gary W. Kuhne, 「The Dynamics of Discipleship Traing Grand Rapids」, Zondervan, 1980, p.13.
32) Edward R. Dayton and Ted W. Engstrom, 「성공적인 생활설계」,서울보이스사.1979, p.38.
33) 김명용, "신앙의 성장과 교리적 체계" 교육교회,1986, 10, pp.779-781.

둘째, 교리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틀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리적 조직 신학적 틀이 없이 성경을 대하게 될 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성경을 종합하고 체계화한 것이면서도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셋째, 교리가 현실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는 너무 다른 문제들이 오늘날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해문제, 핵무기, 낙태, 인구문제, 환경오염, 자본주의, 약물 중독 등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생활에 익숙하면서도 그것에 맞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여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연결 부분인 교리교육이 약한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새신자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가르쳐야 할 기독교 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다음의 일곱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다. [34]

① 서론 ② 신론 ③ 인론 ④ 기독론 ⑤ 구원론 ⑥ 교회론 ⑦ 종말론

이러한 교리를 어떤 순서로 다룰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조직신학적 논리 전개는 위의 순서가 타당하겠지만 새신자들에게는 구원론적인 순서가 더 적당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5]

① 하나님의 속성 - 사랑과 공의

② 인간의 범죄와 타락

③ 죄의 본질과 그 결과

④ 율법과 선행

⑤ 타종교의 문제

⑥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

34) Louis Berkhof, 「 빌코프 조직신학(상)(하)」, 권수경.이상원 역,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35) 김명용, op.cit., pp.781-789.

⑦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⑨ 하나님 나라

⑩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⑪ 믿음

⑫ 구원의 확신

⑬ 성령과 성령충만

⑭ 성화

⑮ 하나님의 말씀 - 성경

⑯ 기도

(3) 훈련분야

훈련분야는 새신자의 생활에서 전도와 교육과 양육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봉사하도록 훈련하는 개인적인 새신자 교육의 주제인 것이다. 그 주제는 전도, 간증, 새신자 교육, 상담 변증론, 시간관리이다.[36]

3. 새신자 교육의 원리

새신자 교육이란 전도의 열매를 보존하고 성장하게 하며 번식시키는 것이다. 구원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교육이 없이는 지속적이며 성경적인 전도가 있을 수 없다. 전도와 교육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유능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하나님의 좌우에 선 검과 같은 것이다.

어떤 선교단체는 아예 조직적인 전도와 교육을 그들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의 관계는 둘 중의 하나가 끊어지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기차

---

36) Eward R. Dayton Ted and wengutom, op.cit., p.38.

길의 두 궤도와 같이 병행한다. 우리가 전도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확하는 것처럼 교육 역시 시간을 요한다. 그것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계속적이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데는 지름길이 없다.[37]

신약 성서에는 새신자 교육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기록한 대부분의 서신들은 새신자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편지들이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38]라는 말씀을 보면 전파와 권면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서는 가르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까지 돌봐야 한다는 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궤휼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39]

생명은 생명체로 보존되고 또 자라나야 하며 번식되어져야 한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은 너무 바쁘다. 물론 목회자가 직접 나서서 전도하는 것이 마땅하나 여건의 조성이 쉽지 않다. 마치 양을 치는 목자가 새끼를 낳지 않고 양이 새끼를 낳는 것처럼 성도들이 전도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새신자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 새신자를 교육하라. 그들이 전도할 것이다.

4. 새신자 교육의 방법

새로 믿기로 결심한 신자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스스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게 됨은 결코 정상적인 신앙성장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와

---

37) 웨이론 B. 모어,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75, p.19.
38) 골로새서 1:28.
39) 베드로전서 2:1-2.

먼저 신앙을 소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새신자 교육의 프로그램을 세우고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교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요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역자로 키워야 한다.[40]

새신자들을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원리에 따른 초대교회의 새신자들에 대한 교육 방법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과 같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전파 매체나 인쇄물이나 기타 대중전달의 매개체가 없었지만 믿지 않는 세계에 복음을 잘 전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거의 개인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졌다. 개인적으로 가서 만났고 개인적으로 기도했으며 개인적으로 만나기가 어려웠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파송했으며 그것마저 여의치 못할 때는 편지를 보냈다.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은 새신자 교육의 방법에 대한 위대한 모범을 보여 주신 분들이다. 이들이 사용한 몇 가지 교육 방법을 다섯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일대일 관계

교회는 저 구원받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새신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새신자 교육을 위한 각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교회는 새신자 반을 통하여 새신자들이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주일에 한번씩 같이 모여서 교회에 대한 특별 강의와 영적인 성장을 위한 성경공부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기도의 시간과 은혜의 체험을 함께 나누는 간증의 시간 등을 통해 서로의 교제를 가지게함으로써 새신자들을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41]

---

40) David Watson,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두란노서원, 1989, pp. 82-86.
41) Leroy Eims, op.cit., pp.92-96.

그 뿐만 아니라 교회는 각자 새신자에게 인격적인 감화를 줄 수 있고 새신자보다 교회에서나 사회적으로 앞서서 그를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일대일 관계를 영적인 양자 관계로 맺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일이다. 42) 영적인 지도자는 가능한 남자인 경우에는 남자. 여자인 경우에는 여자가 좋은데 신앙은 물론 나이나 사회적인 신분이 그 새신자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바람직한 일이며 실제적으로 일하는데 좋다. 그리하여 영적인 보호자는 그 새신자의 신앙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이나 심지어 사생활에서도 신앙적인 영향력이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함으로 그 새신자가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에 보다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동화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영적인 보호자는 혈육의 부모나 형제 이상의 영원한 영적인 관계를 의식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새신자의 신앙 성장과 주님의 제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영적인 보호자는 어머니의 유순함과 아버지의 지도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온전한 교육을 할 수 있다.43)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음이라" 고 하였고 "범사에 그에게 까지 자랄지라" 44)고 성장의 목표를 제시하여 주었다.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하여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자 됨이라" 45) 고 하였고,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46)고 하였다.

---

42) Gary W. Kuhne, op.cit., p.21.
43) Bill Hi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 박영철 역, 서울:요단출판사,1994, p .183.
44) 에배소서 4:15.
45) 데살로니가 전서 2:11.

이런 말씀들은 어떤 관계 양식에서 자신의 의무로서의 고백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본능적인 사명의식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

2) 집중의 원리

이렇게 새신자 각자에게 영적인 보호자를 정해 놓았으면 그 보호자는 새신자의 신앙생활과 사회 생활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관심과 지도는 물론 그 새신자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하는 신앙훈련으로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 47) 의 훈련을 하여야 한다.

새신자가 신앙이 성장하는 일이나 신앙생활은 분명히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사역을 위한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8)

그리고 사람의 한 생명이 이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듯이 영적인 생명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성장하고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위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인적자원으로 활동에 있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로부터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여 점진적으로 그 사역을 확대하여 나가는 방법으로 세계 복음화 사역의 기초를 세우셨다. 49)

그리고 복음확신의 지역적인 사역에 있어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50)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살고 있는 곳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땅 끝까지 이르는 방법

---

46) 데살로니가 2:11.
47) 디모데전서 4:7.
48) Leroy Eims, op.cit., p.74.
49) David Wastson , op.cit., p.82.
50) 사도행전 1:8.

을 제시하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여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교훈해 주신 것을 알 수 있다. 51)

3) 커리큘럼에 의한 교육

1858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은 "먼저 우리가 어디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52)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이 뜻하고 있는 바를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사람들은 실패하기를 계획하지 않지만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일에 실패를 한다." 이 말이 옳다고 본다 계획은 세우지 않거나 계획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

새신자 교육은 무엇보다 계획이 필요하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도달해야 하는 종합적인 커리큘럼이 마련 되어져야 하며 이 커리큘럼에 의해 교육되어져야한다.

세계적으로 재소자교육의 권위자인 게리 W. 쿠네 박사는 새신자 교육의 커리큘럼을 여섯 단계로 설명했다.53)

확신 → 견고함 → 안전함 → 그리스도를 닮음 → 자립 → 재생산

---

51) 박영선, 「사도행전 강해]:초대교회 사람들」 ,서울:도서출판 엠마오, 1994, p.118.
52) 게리 W.구네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 서울요단출판사, 1978, p.100.
53) Ibid, pp.100-104.

4) 커리큘럼에 의한 교재

새신자 교육을 위한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선정되었으면 이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교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교재는 담임교육자가 지역교회의 실정에 알맞도록 직접 만드는 것이다. 아마도 제대로 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5) 훈련된 교관

아무리 훌륭한 커리큘럼과 교재가 있다 하여도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할 교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신자를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군을 키워야 한다. 일군은 짧은 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의 교육과 훈련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다.

목회자와 더불어 새신자 교육의 일을 해야할 일군의 자격은 충성된 자이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하기를 충성된 자를 찾아 그에게 새신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기라고 했다.[54] 교회 생활을 통하여 평소에 충성된 자를 선발하여 이들에게 새신자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전 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각각 은사가 있는데로 새신자 교육의 각 분야별로 맡겨서 일하도록 한다.

그러자면 성급해서는 아니된다.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담임목회자는 지속적인 만남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

54) 디모데후서 2:2.

5. 선행연구의 고찰

온 세계의 교회가 한국 교회에 대한 괄목한 성장을 인하여 예의 주시하고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교회나 각 선교단체에서 중심이 되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전도하며 활동하여 왔었기에 많은 양적 성장을 가져 왔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성장이 멈추거나 성장의 둔화로 유럽교회들처럼 쇠퇴기에 들어가지 아니할까 많이들 염려하고 있다.

위기 의식을 가진 교회나 선교단체 그리고 신학교가 그 원인들을 분석하면서 새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 이상남 석사학위 논문에 의하면 지속적인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새신자를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5]고 강조하면서 장년부 새신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2) 김성기 석사학위 논문에 의하면 새신자에 대한 정의와 교육의 원리에 의한 실제적인 가르침에 대한 방법[56]을 제시하므로 교회가 새신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3) 신동운 석사학위 논문에 의하면 새신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발[57]하여 교회들이 새신자 교육에 대해 적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다.

4) 황선호 석사학위 논문에 의하면 새신자들이 믿음을 쉽게 받아드릴 수 있도록 기초교육과정[58]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교육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관리체제까지 기술하고 있다.

5) 임은환 석사학위 논문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성장사에 대하여 이

---

55) 이상남, "교회성장을 위한 새신자 육성방안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79.

56) 김성기,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실제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1988.

57) 신동운, "효과적인 새신자 양육을 위한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89.

58) 황선호, "새신자를 위한 기초양육 과정",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4.

론을 제시하면서 새신자 교육이야말로 한국교회성장에 대해 없어서 안 될 핵심적인 교육임[59]을 강조하고 있다.

6) 이유진 박사학위 논문에 의하면 새신자 교육의 원리와 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성경적인 교회성장에 대한 고찰과 아울러 조사 연구를 통해 새신자 교육이 교회 성장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제로 효과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교재까지 제시[60]하고 있다.

7) 새신자 목회의 중요성을 인식한 몇몇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의 성장과 개 교회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장르의 강의를 1990년부터 지금까지 년 1회식 세미나[61]를 하고 있다.

상위와 같이 선행 논문과 세미나 자료들을 살펴보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기에 본 연구자는 연구자료로 참고 했음을 밝혀둔다.

---

59) 임은환 "새신자 양육을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신학연구원, 1992.

60) 이유진, "지역교회에서 새신자 양육에 관한 커리큐럼 연구", 미국 루이지아나 침례대학교 신학대학원, 1996, pp.168-228.

61) 이용남, "새신자 목회 세미나 1-8회"

Ⅲ. 성서속의 새신자 교육 고찰

지금까지 새신자 교육에 대하여 기술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먼저 성서에 근거한 새신자 교육의 역사적인 고찰과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참된 기독교 교육은 성서의 비옥한 토양에서 발생하며 그 원리와 방법에도 성서에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62)

성서에 나타난 새신자 교육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시대적으로 분류해서 보게 된다.

1. 구약 시대의 새신자 교육

기독교는 과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섭리를 진행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교훈도 구약에 근거하였고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도 신약의 복음서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63) 특별히 기독교 교육은 유대인의 교육 토양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64)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교육은 기독교 교육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새신자 교육이란 유대인들의 새신자 교육을 뜻한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모태에서부터 야훼의 신앙을 가지고 태어나서 야훼의 신앙 전통 의식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새신자와 기성 신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저들이 아이를 낳으면 생후 8일만에 할례를 행하므로서65)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 예식을 행하고 계약의 백성으로 교육이 시작된다. 66) 그렇다면 새신자 교육의 효시는 유대인의 어린이 교

---

62) C.B. Eavey, 「기독교 교육사」, 김근수 역, 한국기독교 교육연구원, 1982, p.109.
63) Ibid.
64) Werner C. Graendorf, op. cit., p.26.
65) 창세기 17:12 , 레위기 12: 3.

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약성서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원리를 보면 어린이가 장성하기 전에 조기에 교육을 했었고 (사28:9), 정신이 맑은 아침에 교육을 했다.(사50:4) 또한 나이와 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교육했으며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교육했다.(사28:10,13) 그리고 잊어버린 것을 재 반복하여 가르쳤다 (신4:9,5:15). [67]물론 구약시대의 어린이 교육은 주로 가정에서 부모들에 의해서 행해졌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를 참 신앙으로 교육할 책임을 지고 교육했다.[68] 그러나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시대적으로 자녀 교육의 방법이 다소 다르게 나타남을 본다.

1) 족장시대의 교육

족장시대의 교육은 형식적이며 정규적인 교육은 없었다. 그러나 형식적이며 정규적인 교육대신에 자연적이며 비형식적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의식을 통한 교육이다. 그들의 자녀들은 이러한 제사의식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책임을 배우고 하나님에 관하여 보다 깊은 이해를 얻고 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다. [69] 또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들에 관하여 배웠으며 그 언약이 신앙에 의하여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살아있음을 배웠다. 이러한 배움속에서 메시아 대망(the Messianic -hope)의 신앙도 필연적으로 있었다고 본다. [70]

---

66) "할례", 「성서 백과 대사전 제12권」, 민영진 편집, 서울:성서교재 간행사,1982, pp.284-287.

67) A. W. Morton, "ducation in Biblical Tims", in The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vol.2, ed. by M. C. Tenny,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5, p.218.

68) J . D . Smart,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윤철 역, 대한기독교서회, 1980, p.60.

69) C . B . Eavey, op,cit., pp.19-20.

2) 광야시대의 교육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속되는 역사적인 변화와 정치적 소용돌이 속을 뚫고 꾸준히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몸부림쳐왔다. 그 몸부림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지속시켜온 한 가지가 민족적 대사건인 출애급 사건이다. 이 사건이 증언 될 때마다 이 사건의 주역이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 되새겨져 왔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광야로 보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것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교육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요 인류에게는 축복이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후부터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 율법이 되었다. 71)

유대 민족의 전 역사를 통하여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교육의 중심이 되었고 율법은 교육의 바탕이 되었다. 72)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라는 교육선언을 하시므로 히브리 민족에게 자녀들에 대한 종교교육의 절대성을 보여 주셨던 것이다 (신6: 4-9).73)

3) 포로 이전 시대의 교육

Lewis Sherrill은 "유대가 바벨론 포로가 된 시기를 기점으로 전기의 교육과 후기의 교육으로 나누고, 전기를 히브리인의 교육이라 하고 후기를 유대인의 교육이라 부르고 있다."74)

(1) 어린이 교육(가정 교육)

---

70) Werner C. Graendorf, op.cit., p.72.
71) Ibid., pp.73-74.
72) Ibid., p.76.
73) 김영규,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4, p.48.
74) Lewis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 N.y : Macmillian co,1994, p.6.

쉐마(신명기 6:4-9)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은 최초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75)

가정은 교육의 기본 장소이고 부모는 엄격한 교사로서 교육적 책임을 졌다.76) 그리고 그들의 교육은 율법교육이고 생활교육이며 또한 민족교육이었다.77)

신의 축복을 받은 가정에서 시행하였던 종교교육은 바로 이 신의 의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행위라고 보았고 그 행위를 수행하는 교육 방법들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 졌었다.

첫째 온 가족들의 공동으로 행하는 활동에 직접 그리고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이었다. 바벨론 포로 이전의 히브리인들은 목축과 가사로서 생활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자녀교육은 생활과 가사와 직접 연결되었던 직업적인 것이었다.

둘째, 어린이들의 모든 행위를 통제함으로서 실시 되었다. 신의 뜻을 수행하고 복종하는 구체적인 행위로서 잠언서 전도서는 이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사회생활과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을 위한 길잡이 들이었다.

셋째, 가정에 있어서의 구전방법이었다. 구전의 내용이란 역사속에서 보여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압축시킨 성서에 기록된 Shema 이다.

넷째, 종교의 의식에 의한 것이었다. 그 중의 하나는 남아에게 팔일 만에실시하는 할례라는 의식이며 그 다음 그 남아의 생후 사십일 이 되면 생모는 어린 양을 잡아 속죄를 위하여 바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의식은 베쥬자라는 양피지에 글을 새겨 넣고 이를 나무나 쇠로 만든 상자 속에 넣어 문에 메달아 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열살이 되면 소년들은 종교적 책임을 지어야 하는 바미즈라는 의식을 거쳐 히브리 공동체의 한

---

75) 정정숙, 「기독교 교육과정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1980, p.23.
76) 반피득, "기독교 교육", 서울:한국개혁주의 신학협회, 1992, pp.12-13.
77) 정원식, 「유대가정 교육의 비결」, 서울:샘터사,1997, pp.12-13.

성원이 되어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된다.

또 다른 의식인 안식일은 신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표시로서 예배와 안식을 위하여 거룩한 날로 정하여졌던 것이다. 이외에 히브리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있으며 교육적 행위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하나의 절기는 유월절로서 히브리인들이 흩어지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무교병으로 준비한 유월절 식사 포도주, 축복과 시편 읽기 등으로 계속 시행되어온 히브리 가정의 중요한 행사였다. 또 하나의 다른 절기인 장막절에는 모든 히브리 남자들이 매년 칠일만은 장막 속에 함께 살아야 했으며 팔일째 날에는 "율법의 기쁨"이라는 것이 열렸었다. 이 기간 그들은 율법에 의한 교육을 받았다.[78]

이러한 모든 종교의식을 즉 할례 베쥬사 바미즈와 안식일, 유월절, 장막절 등을 통하여 종교적 사상이나 그들의 신앙 구조, 추상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엄격하고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장으로하여 참여, 행위, 대화를 거쳐 경험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2) 장년교육

포로 이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들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받았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그 직능에 따라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라고 불리웠으며 이들의 교육은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79] 재사장은 제사의식 회당의식, 절기의식 등을 인도하므로 백성들의 신앙을 교육했고, 예언자는 예언과 책망과 경고를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교육했고 선지자는 율법 연구를 통해서 그들을 교육했다. [80]

4) 포로 이후 시대의 교육

---

78) 은준관,"교육신학", 서울:대한기독교서회,1976, pp. 85-88.
79) 정정숙, op. cit., p.24.
80) 반피득, op.cit., pp.13-15.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랜 포로 생활속에서 그 동안 섬겨왔던 야훼의 신앙이 화해될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혹은 외세에 적응함으로써 생존하는 나라는 정치적 상황속에서 그들은선택해야만 했었다. 이러한 민족적 위기서 히브리인들 가운데 소수는 외세의 억압을 반대한 나머지 더욱 더 하나님의 뜻을 모색하는 길을 선택하였으며 율법을 더욱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 율법으로부터 계속 그들의 행동을 위한 구체적 법들을 만들어 그들의 종교 교육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팔레스틴으로 돌아옴과 함께 유다 왕국을 건국할 때에 에스라는 율법을 왕국의 법으로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 시기에 소위 "남은 자"의 사상이 생겼으며 "고난의 종"의 사상이 생성되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 남은 자들의 종교적 신앙을 계속 하나로 묶었던 요소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려진 토라였다.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기도 하였고 의식과 안식일을 지키는 특별한 법들을 뜻하기도 했으나 토라는 신의 해답을 실은 율법이었으며 공인된 주의종들에 의하여 전달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히브리인들의 생활 양식은 바뀌었고 또한 후대에 이르러 유대주의 종교로 발전된 때에도 토라는 그들이 생활 중심 속에 계속신의 뜻을 대변하는 교육의 산 내용 구조가 되어왔다.

포로 생활 이후에 나타난 교육의 현장과 폭수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계속 신의 의지를 추구해 갔던 그들의 종교적 동질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그 교육의 현장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하나는 포로 이전의 히브리인의 교육 전통이 그대로 이식되어 온 비공식적인 현장들이었었다. 즉 포로가 된 이후의 히브리인들은 성전 대신 회당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회당이 언제 생겼는가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없다. 다만 바벨론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이며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인들은 안식일과 다른 절기에 가장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모이기 시작한곳이 곧 회당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계속

되는 동안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는 회당이 필수적인 공동의 생활 현장으로 제도화되어 갔다. 그러므로 신약시대까지 존속되었던 회당은 예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교육하기 위한 기관으로써 회당에서 실시된 교육은 성서를 읽기, 토라를 읽는 일, 또 듣는 일, 그리고 예배 행위들이었다. 히브리인의 오랜 전통은 "제사"와 제물을 통한 속죄 행위였지만 회당에서의 예배 행위는 제사가 아닌라 가르치는 교육 행위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회당의 출현은 유대 역사의 한 중요한 전환이기도 했던 것이다.[81]

회당 안에는 "율법"을 적은 두루마리가 회중을 향하여 놓여있었고 회당장이 있어 모든 종교활동과 교육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엇다.

회당에서는 하잔이라는 회당 전속의 지도 아래 친교와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하여 신앙교육을 실시했다.[82] 아울러 주간동안 그는 많은 히브리 사람들과 어린이들을 가르쳤다. 특히 교육적인 목적으로 실시된 안식일 의식은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다.

첫째 : 쉐마이다. 의식 전체를 시작하는 개회의 말씀과 같은 것이였다.

둘째 : 쉐마에 뒤따르는 기도로써 선택되어진 한 사람이 (율법 앞에 서서)"축복"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 이 때에 회중들은 "아멘"으로 응답하게 된다.

셋째 : 성서의 봉독이다. 좁게 말하자면 토라인 율법서 중에서 읽게 된다. 낭독자는 회중 가운데서 아무라도 알 수 있으나 제사장이 있을 때에는 그가 성서를 낭독한다.

넷째 : 예언자들의 말씀을 읽는 일이다. 토라에서 한 귀절을 읽는다면 에언서에서 한 구절을 읽게 된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라고 볼 수 있는 성서 해설을 듣게 된다.

다섯째 : 제사장이 있을 경우에는 축도로써 마치게 된다. 만일 제사장의 부재시에는 기도로써 의식은 끝을 맺는다.

---

81)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76, pp.93-94.
82) 오인탁외 4명, 「기독교 교육론」,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84, pp. 126-127.

이로써 포로가 된 유대인들에게 회당의 존재 의미는 모든 에배와 만남과 가르치는 생활 전부의 표현이었으며 더욱이 교육적인 구조로서 이는 유대인 생활을 결정지어 주는 가장 중요한 생활 현장이었다. 제사장과 예언자 중심의 종교 구조로부터 회당은 민중의 예배와 배움의 장소로서 탈바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생활과 신앙에 일대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그리하여 회당은 비공식적인 교육의 장소였지만 전 유대인의 생활 그대로의 표현과 참여가 일어났던 교육 공동체였다는 이유에서 그 의미는 중요한 것이다.[83]

그리고 학교 교육으로는 벧 핫세퍼, 벨 탈무드, 벨 하미드라쉬, 아카데미라는 교육 기관을 통해서 교육했는 데 그 중에서 벧 핫세퍼는 초등 교육기관으로 신앙의 초보자를 지도하는 초신자 반이라고 할 수 있다. [84]

또한 교수방법으로는 성경봉독, 율법강해, 요절암송, 율법교독, 문답형식 비유와 상징법등이 있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활동과 함께 개종자들을 위한 종교교육이 있어서 613개조의 계명을 가르쳤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었다.[85]

2. 신약시대의 새신자 교육

새신자를 보다 정확히 알고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열 두 제자를 선택하셔서 가까이 두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를 중심으로 새신자 교육의 흐름을 찾아보고자 한다.

---

83) 은준관, 전게서, p.26.
84) L. Sherril , op.cit., pp.52-60.
85) 정정숙, op.cit., p.26.

1) 예수의 교육목표

복음서에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스런 봉사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는 전도(Kerygma)와 교육(Didache)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사역은 분명히 구별해 낼 수 없도록 서로 얽혀져 있다.[86]

예수님은 위대한 전도자요 동시에 위대한 교사였다. 에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87] 또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새신자들을 가르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당신의 제자로 훈련시켰다.[88]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 사역의 발전이 훈련받은 제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여 복음전선으로 파송하셨다.[89]

마침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으 생애를 모두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90]고 명령하심으로 역시 제자들에게도 당신의 사역처럼 전도와 교육의 사명을 동시에 병행하라고 당부하셨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인상은 교사(Rabbi)에 가까웠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하여 "Rabbi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라고 말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대적한 바리세인들이나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다.[91]

이와같이 사람들은 예수를 선생, 즉 Rabbi라고 불렀다.(요3:2) 마가는

---

86) J. D. Smart, op.cit., p.19.
87) 마가복음, 1:15.
88) 마태복음, 26:55.
89) Leloy Eims, 「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 Gromd,Ra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1, pp.37-38.
90) 마태복음 28: 19-20.
91) J. D. Smart, op.cit., p.19.

언제나 예수에 대하여 기록할 때에 그를 가르치는 분으로 묘사했다.(마 9:11)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을 선생(Rabbi)이라고 51회나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선생이라고 기록한 것이 5회나 된다.[92]

진실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표현 보다도 교사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 가르침은 예수님의 사역에 전체를 차지 하였다고 할 수 있다.[93]

그러면 교사되신 예수님의 교육목표와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교육의 목표를 세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 구원

예수님의 교육목표는 인간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의 선포였으며 가르침이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기를 "소식의 전달자"라 하지 않고"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94]

(2) 구원을 받은 신자의 품성과 생활을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님의 이러한 교육목표는 그가 직접 명령하신 선교의 대명령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보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 복음 28:19-20)"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그의 교육목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영혼 구원"

둘째, 성경 교수

셋째, 교인의 생활지도이다.

---

92) Lewis J. Sherrill, op.cit., pp.86-87.
93) C. B. Eavey, op.cit., p.113.
94) 요한 복음 10:10.

여기서 명한 것은 예수님의 교육목표의 첫째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뒷받침하는 성경구절은 복음서에 여러 구절이 있다. 95)

넷째, 거만한 세리를 그의 탐욕에서 구원할 것

다섯째, 거리의 여인을 거의 저항할 수 없게 사로잡고 있는 영향력에서 구원할 것, 캔트의 이러한 주장은 인격성장을 고조한 예수님의 교육목표를 바로 지적했다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중에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고상한 인격과 삶의 기쁨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정직, 겸손, 이타심, 친절 및 희생과 같은 적극적인 미덕을 기르고자 하였다. 아울러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는 인간으로서 가능한 죄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이었던 것이다.

(3) 하나님 나라의 실현

예수님의 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유대인의 종교적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 당시 정치적 상황은 로마제국의 통치로 유대인들이 심한 고통과 갈등에 빠져 있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정치적 해방과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 무르익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친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이 원했던 정치적인 해방이나 사회개혁이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성이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선포와 완성이다. 96) 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진 교육 과정과 현장은 공식 학원을 열어 제자들은 그 밑에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자신은 제자들의 생활 그 현장 한복판에 찾아가서 그 곳에서 대화하셨고, 부르셨고 또 가르치셨던 것이다.

---

95) 마태 복음(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누가 복음(19:10,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96) 은준관, 전게서, pp.97-99.

2) 예수님의 교육방법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새신자 교육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생활의 본을 통한 교육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따르라."(마4:19) "가서 너희도 이와같이 하라."(요13:15)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11:29)고 하면서 당신의 삶 그 자체를 보여줌으로 가르치셨다. 이 방법은 가장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교육방법이다. 예수님은 가르치기 전에도 이미 행동하셨고 가르치는 것은 그대로 실천하셨으며 앞으로 가르치실 것도 미리 행하시고 계셨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쳤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심으로 본이 되셨다. 사랑을 가르치면서 실제로 사랑의 사람이 되었고 끝가지 사람과 제자를 사랑하셨다. 겸손하기를 가르치면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 전도하기를 부탁하신 그는 전도의 본을 보여 주셨다. 그는 이렇게 가르침과 행동을 같이 하셨다.

(2) 생활 현장에서 자유롭게 교육했다.

4복음서 전반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교육적 사역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의 교육방법은 공식적이며 정규적인 것보다는 비공식적이며 자연적 비정규적인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예수님은 장소를 초월해서 길에서나, 해변에서나 광야에서나 산에서나 집에서나 우물 곁에서 그리고 회당과 성전 그 어떠한 곳에서도 친밀하게 거닐고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리를 가르쳤다.

(3)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하여 교육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교육방법은 형식적이기 보다는 비형식적이며 자연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면 질의 응답을 통해서 면담과 대화를 통해서 시청각적인 실물교육을 통해서 알기 쉽게 가르치셨다. 97)

(4) 생활에서 부딪치는 경험을 통해서 교육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막연한 이론이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생활 주변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생활에서 부딪쳐오는 시선을 토대로 해서 말씀의 이해와 도움을 얻도록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유의 내용은 거의 생활에 관계된 이야기들이였다. 겨자시, 누룩, 감추인 보화, 진주장사, 물고기 잡는 일, 포도원, 무화과 나무, 잃은 양 등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들이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매일 행위, 그들의 기쁨과 슬픔, 가정에서의 의무, 빈궁과 역경과의 싸움, 결혼, 잔치, 다른 사람과의 개인적 접촉, 걱정과 근심 평화로운 생활에 관한 것 등 인간 생활의 전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셨다. 이미 예수님은 전인교육 과 생활 교육을 시행하셨다.

(5)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함께 생활하심으로 교육했다.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의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셨다. 98) 또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는데 인색하지 않으시고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 생활하시므로 개인접촉을 통하여 신앙을 지도하셨다.99)

(6) 개인의 영혼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교육이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대상은 개인이었다. 그는 개인적인 접촉을 강조하셨고 한 영혼에게 관심을 집중시키시고 한 영혼이 바로 서는 것에 영구할 가치를 두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고 한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가르치셨다.

(7)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교육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셨다.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을 최대

---

97) 은준관, op.cit., p.116.
98) 김영규, op.cit., p.56.
99) Waylon .B. Moore, 「신약성서적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정학봉역, 요단출판사, 1982, pp.38-40.

한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개발시켰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은 성격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선택했고 또 가르치고 훈련시켰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을 예수님이 내다보셨기 때문이다. 이점이 보통 사람과 달랐던 예수님의 교육 정신이었다.

예를 들어 몇몇 제자들의 성격을 살펴 볼 때 먼저 시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충동적인 사람, 저돌적인 사람, 성급한 사람이었다. 그의 반응은 격발적으로 나타났다. 그는 먼저 행동을 취한 후에 그것을 생각하였다. 100) 브라운은 위와 같이 표현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시몬의 이러한 충동적이고 과격한 성품을 용기있는 사람으로 이해했다.

또한 그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동시에 베드로 (반석)라는 이름을 얻었으며 초대교회의 기초석 같은 인물로 양성되었다.

브라운은 계속해서 요한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폭풍의 아들이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을 열정의 회오리 바람, 혹은 분노의 돌풍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었다. 온유하고 수동적이고 우유부단한 사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난폭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101) 이러한 예수님의 이해는 달랐다. 예수님은 요한의 격한 감정과 성품이 사랑의 사도가 되고 말았다. 102)

글로버는 미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 무리 속에 있었던 세리도 아주 같은 형태의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자기의 일과 세관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한층 더 성급한 성격과 또한 따뜻한 성격의 마음도 갖고 있었다."103)

이 따뜻함은 곧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

100) C. R. Brown. 「These Twelve」, New York: the century co.,1926, p.4.
101) Ibid., p.79.
102) 요한 복음과 요한 서신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사랑의 사상과 개념이 연속되고 있다.
103) T. R. Glover, 「The Jesus of History」, New York: H. Porn Co.,1917, p.77.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채택하신 이 교육 방법이 처음에는 쉽게 잘 적중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 왔다. 왜냐하면 3년간의 제자 교육이 처음에는 실패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못박히자 열한 제자들은 놀란 양처럼 뛰어 예루살렘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하고자 그늘속으로 기어들어 갔다. 이렇게 쉽게 변화를 받지 못한 것은 한 사람의 성격 변화와 다른 태도를 형성하고 습관을 개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거리기 때문이다.

밥코코(Babcock)는 "훌륭한 습관은 당일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성격이 일년에 생기는 것도 아니다. 환상이 사라지고 꿈은 깨지고 심장은 새로운 영감으로 약동할 수 있지만 시험과 개선은 평지 위의 산기슭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실망하지 않았다. 왜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알고 또한 인간의 연약성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이다. 104) 주님께서는 가능성을 멀리 내다 보고 "한 방향이 막혔을 때 꾸준하고 침착하게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주님은 모든 방향이 막혔고 죽는 길만이 남았을 때 바닷가에서 무리를 먹이던 것과 같이 달콤하고 자신있게 죽었다."105)라고 Marquis는 주님의 죽음에 대한 자신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는 희망을 가졌다. 그는 아무에게도 결코 실망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다. 가장 나약한 그들에게 언제나 희망을 가지게 했다.

(8) 영적 성숙의 단계에 따라 교육했다.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개성과 개인차가 있어 그 개인차에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특별하게 교육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육에 있어서 개인차를 인정하고 영적인 성숙의 단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교육하셨다.

마태 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설명을 밭에 씨뿌뿌리는 비유로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저희에

---

104) 천정웅, 「교사이신 예수님」, 서울:지혜문화사, 1983, p.101.

105) J . A. Marquis, 「Learning to teach from the Master Teaher」,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p.59.

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하고 물었다. 그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대답하셨다.(마 13:10-11) 이것은 무리들이 아직 천국 설명을 이해할 만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 설명한다는 말씀이다.

(9) 개인 상담을 통하여 교육했다.

예수님은 개인의 문제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시어서 그들과 상담하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문제해결을 얻게 했다.

예를 들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교육적인 발전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갔는가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은 먼저 호기심과 질문을 불러일으키게 했다.[106] 우물물을 구하는 그녀에게 "생명수"에 대해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관심을 갖게 했고 생명수를 얻는 방법을 물을 때 예수님 자신을 소개했다. 즉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적으로 우물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심령의 기갈을 위하여 주시는 생명의 물로 변동시켰을 때 그녀는 단번에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두 번째 단계로 예수님은 그녀에게 필요한 인물이 되어지고 그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끔 발전시켜 갔다.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107]라고 요청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완전히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단계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으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였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깊은 심령상의 욕구를 느끼게 하였다. 세상의 것으로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어도 참 심령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직도 심령의 참 만족과 민족적인 장벽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녀에게 진실한 예배를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

106) 천정웅, op. cit., p.116.
107) Ibid., p.116.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108] 이제 이 여인은 마지막 문제를 해결할 지점에 이르렀다.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제는 메시아를 찾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네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로라."[109]라고 최종적인 해답을 주셨다. 예수님은 대회가 성립할 수 없는 민족적 장벽과 성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에서부터 생수로 심령의 만족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차분하고도 완벽한 교육을 성공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니고데모, 삭개오, 소경, 백부장, 혈루증 앓는 여인, 마리아 등 수많은 사람들과 개인적인 만남의 교육을 시도했는데 이렇게 그는 개인적 접촉을 강조하였다. 그의 시간의 대부분은 개인이나 제자들과 학생들로 지정된 무리와 보내었다. 주님은 큰 무리가 피상적인 방식으로 그의 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는데 분명히 관심을 더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의 일을 3년 동안 하시면서 많은 시간을 개인들을 다루는데 보내었다. 이 세상을 구속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위대한 시기나 어떤 동력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평범하고 흔하고 매일의 생활의 보편적 사건에서 그에게 온 기회를 이용하고 그 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영혼에게 전부 주는 것이었다.

(10) 훈련된 제자들을 통하여 교육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리들을 직접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적은 제자의 무리를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셨다. [110]

예수님은 목표도 방향도 없는 교육을 하지 않으셨다. 언제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르치셨다. [111]

이상으로 우리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새신자 교육의 태도와 방법과

---

108) 요한 복음 4:24.
109) 요한 복음 4:26.
110) 천정웅, op.cit., pp.113-114.
111) Waylon B. Moore, op.cit., pp.19-20.

목표를 찾아보았다. 오늘의 새신자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이 원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3. 사도시대의 새신자 교육

새신자 교육에 대해서는 신약성경보다 더 폭넓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이며 전교회적으로 가르치고 설명한 책은 없다. 특별히 사도들의 대부분의 서신들, 즉 바울 서신과 베드로서신과 요한 서신들은 새로 믿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서신들이다.

빌립보서 1:23-25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이 첫째 목표는 새신자를 교육하는 일이었다. 112)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이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113)

사도 바울은 아직도 연약하고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좀 더 살아서 역사해야 하겠다고 자신의 삶의 이유를 밝힌다. 여기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라는 말은 아직도 어린 상태에 있는 빌립보 교회 신자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려는 것으로 새신자 양육의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교역이나 교회 전반에 있어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교사의 직분을 사도와 예언자와 복사의 직분과 함께 인정하였다.

바울은 교사의 직분을 고린도전서 12:28에서는 예언자 다음에 두었고 에베소서 4:12에서는 전도자요 목사의 다음에 두었다. 이것은 교회의 기

---

112) Waylon B. Moore, op.cit., p.40.
113) 빌 1:23-25.

능에있어서 교사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시켜주는 것이다. 초대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은 누구나 다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새신자 훈련같은 특정한 일은 교사들에게 맡겨 교육했던 것이다.[114]

사도행전 5:42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고 했다 이것은 초대교회는 말씀에 대한 봉사로써 전도와 교육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었다. 전도는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상대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다. 즉 죄와 불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고 외치는 일이었고 교육은 주로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로서 아직 불신앙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 은혜안에서 자라게 하는 일이라.[115]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전도와 함께 신자들을 은혜안에서 자라게 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리고 사도들의 새신자 교육 내용과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들로 요약할 수 있다.

(1)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쳤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사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행5:42) 진실로 사도들의 선교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촛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다. 이처럼 사도들은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고 또한 모든 교회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전하고 가르쳤다.

사도들은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보다 견고한 기독교적 신앙을 넣어주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

114) J . D. Smart, op.cit., pp.20-21.
115) Ibid., pp.22-23.

이해가 절대 필요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유대교에서 개종한 개종자들이었다. 그러나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가 구약성서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116]

(2)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르쳤다.[117]

새신자 교육이란 전도의 열매를 보존하고 성장시키며 번식시키는 것이다. 교육이 없이는 교회로 들어온 신자들을 계속적으로 교회에 머무르도록 보존할 수 없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너희는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는 주님의 복음 명령을 따라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다. 또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는 약속대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폭발적인 전도활동을 전개했다. 이리하여 교회는 날로 숫자적으로 팽창하여 나갔다. 실로 초대교회의 부흥은 놀라운 것이었다.[118]

사도행전 4장에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제자의 수가 3천명이나 되었다.(행4:37-41)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교회로 몰려든 새신자들을 계속적으로 교회에 머물게 하는 일이다. 이일을 위해서 사도들은 적극적으로 새신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42-47에 나타난 사실이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

116) C . B. Eavey, op.cit., pp.119-120.
117) Waylon B. Moore, op.cit., p.19.
118) Ibid., p.42.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물건을 서로 통용케 하고 재산 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게 한 것은 예루살렘에 머물 준비없이 갑자기 모여든 새신자들에게 음식과 처소를 마련하기 위한 긴급대책이었다.[119]

이러한 일은 새신자들로 하여금 계속 교회에 머무러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던 조치이었다.[120]

(3)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기르도록 가르쳤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의 새신자 교육을 위한 강렬한 욕망과 훌륭한 모범이 나타나 있다.

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박해가 심해지자 바울의 전도단은 박해를 피하여 그곳을 떠나야 했다. 루스드라에 도착한 그들은 박해를 피하여 그곳을 떠나야 했다. 루스드라에 도착한 그들은 어떤 병자를 고쳐주어 신으로 대접을 받는 소동까지 벌렸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돌로쳐 죽이게 했다. 여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바울은 지난 날 그토록 박해했던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 이유는 박해를 받고 있는 신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였다.[121]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기 위해서였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리아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에게도 전파되어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모여들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보내어 격려토록 하니 바나바는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 중에서도 굳게 믿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다. (행 11:19-24)

---

119) 최원진, op.cit., p.13.
120) Leroy Eims, op.cit., p.42.
121) Waylon B. Moore, op.cit., pp.39-40.

또한 바울 사도는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전 15:17-19) 부활은 크리스천의 신앙을 확인해 주는 증거이며 고난 중에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만일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며 동시에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다.

오늘까지의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 신앙 때문에 죽음을 감수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죽음 후에 부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수요하는 사건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쓸모 없는 죽음을 감수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순교자들은 죽음을 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였고 기쁨이 충만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보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지고 그 여예세로 강하게 증거하게 된 것이다. [122]이처럼 사도들은 새신자들로 하여금 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권하고 교육했다.

(4)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르쳤다.

사도 바울의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이 신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다

요한 칼빈은 그 아들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맏아들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도록 결정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

122) 맹용길, "한국교회와 교육",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1984, pp.267-271.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본 받아야 할 영원히 살아 있어 두드러진 분이라고 말했다.[123]

또한 에베소서 4장 13-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궤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

역시 요한 칼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나이가 늙은 것을 뜻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영적 생명의 활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완전히 장성된 분량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후에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124]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새신자 교육의 목표는 명확하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이루는 것이다. 바울은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다.

(5) 이단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르쳤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그리스도교로 개종해 온 이방인들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교회는 이러한 개종자들에게 기독교의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만 했다.[125]

또한 교회가 급 성장함에 따라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 사상이 강하게 침투해 들어왔다.

---

123) John Calvin, "사도행전" 성경출판 위원회 편, 서울:성서교재 간행사, 1980, pp.266-267.
124) Ibid., p.342.
125) 정동성, "기독교 교육개선", 서울: k.c.c.e. , 19 , pp. 24-25.

과거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 사상은 주로 율법주의와 영지주의 였다. 그리고 이 두 이단 사상은 과거교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 넣고 있었다.

율법주의란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율법을 지킴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정면으로 도전했다. 왜냐하면 과거교회 신자들의 대부분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섬기던 자기들의 사상과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고립하고 있었기 대문이다.

이리하여 순수한 신앙을 가진 신자들까지도 이러한 사상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 2 : 8-9)고 했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사도들은 이러한 율법주의 이단을 경계하고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같은 서신을 써서 교회에 보냄으로 율법주의와 같은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신자들을 교육했다.126)

또한 영지주의란 당시 희랍사상의 다원론의 영향을 받은 이단으로써 대체로 기독교를 일종의 고차원적인 지식(Gnosis)으로 해석하려는 철학적인 종교였다그들의 사상은 창조론, 기독론, 인간론에 있어서 기독교의 기본 사상을 부정한다. 그들은 지식이라는 우상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 단순하고 평이하기 때문에 좀 더 고차원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인식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전 12:3) 고 말했다.

---

126) Horlin Swingam, 「베델성서연구」, 서울: 컨콜디아사, pp. 69-74.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할 수 있는 믿음을 사람의 지식이나 이해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단에 현혹 되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경고한다. "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농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에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골 2 : 8) 그리고 사도들도 앞을 다투어 골로새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1,2서, 유다서를 써서 이 무서운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쳤다.[127]

또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영지주의자들은 인생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 주장했다.

그러나 사도들은 부활이 분명히 있으며 신체의 부활에 대하여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즉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자 들 중의 '먼저 나온자'로 부르신 것은 성도의 부활도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뜻하며 또한 그의 부활이 신체적 부활이었으므로 성도의 부활 역시 육체적 부활일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이 신체의 구속을 포함한다는 말은 이러한 육체의 부활에 대한 간접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롬 8 :23)

물론 이 때 부활하는 신체는 지상에서의 신체와 같은 나약하고 부패하며 시공의 제약을 받는 육체가 아니라 죽음과 질병이 없고 영원히 썩지 않으며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분이라고 가르쳤다.[128]

(6) 제자화 하기 위해 가르쳤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은혜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딤후2: 1-2)

요한 칼빈은 여기 '부탁하라' 는 말을 '전달하라', '가르치라'는 뜻으로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127) Horlin Swingam, op.cit., pp.133-138.
128) 고린도 전서 15장 42-49.

"너희는 나에게서 들은 것을 몸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의 가르침을 공포케 하라"129)

다시 말해서 신자들을 제자화 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라는 뜻이다. 맥가브란은 이 말씀을 기초로하여 교회는 새로운 집단을 찾아내어 제자로 훈련시킬 때 성장하게 된다고 말했다.130)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재생산의 원리를 강조한다. 양육자인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처럼 디모데는 자기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디모데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제 생산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131)

즉 새신자를 훈련시켜서 제자를 만들고 그로 하여금 다른 제자를 다시 생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과정을 통해서만 이 기독교의 확장과 성장을 도모 할 수 있다는 것이다.132)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롯한 과거교회 사도들은 한편으로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전파된 복음이 계속 보존되고 확장되고 번식되도록 제자화 운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참으로 바울의 초점은 과거교회를 위한 지도력을 배양하는데 있었으며 다른 세대에 대한 관심을 집중했던 것이다.133)

기타 과거교회 사도들의 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과 진리는 유대교적인 진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지만 교수 방법은 근본적으로 동일했을 뿐 만 아니라 교육

---

129) John Calvin, 신약주석 9, p. 561.
130) D.A. McGavran & W. C. Arn, 「The steps for Church Growth」,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97 , p.81.
131) 김남석, 「제자훈련을 통한 새신자 양육론」, 정음출판사,1984, p. 34.
132) Ibid., p.16.
133) Ron Jenson & Jim Stevens, "Pynamics of Church Growth",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1, pp. 158-159 .

자로도 구약성서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134)

또한 사도들은 말로써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박해의 고난 속에서 기쁨과 용기를 잃지 않는 생활의 본을 보여서 새신자들의 신앙을 지도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행 5:41-42) 이렇게 고난과 박해 중에서 참고 견디면서 기쁨과 용기를 잃지 않는 사도들의 태도는 새 신자들에게 산 교육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다.135)

또한 새 신자 교육을 위한 사도들의 팀웍도 놀랍다. 예를 들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여 새 신자를 많이 얻었을 때 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즉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빌립의 전도사업을 지원한 것이다. (행8:5)

과거교회의 성공적인 전도와 새 신자 관리가 바로 이러한 긴밀한 협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별히 바울은 부활의 예수를 가르치는 교육 선교를 하였는데 그의 교육장도 예수님처럼 비정규적이며 자연적인 것이었다. 어떠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회당에서 극장에서 법정에서 감옥에서 시장터에서 학교에서 배안에서 방안에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가리지 아니하고 전하고 가르치는데 힘썼다.

그리고 그의 교육방법은 대체로 토의 형식이었드며 때로는 서신을 통하여 교육하기도 했다.136)

이상으로 사도들의 새 신자 교육의 내용과 목표와 방법을 더듬어 보았는데 오늘의 새 신자 교육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34) C. B. Eaver, op. cit., p.120.
135) 최원진, op.cit., pp.14-15.
136) C.B.Eavey, op. cit., p.120.

4. 과거교회 후기 시대의 새신자 교육

과거교회 초기부터 후기에 걸쳐 발전되어 온 기독교 교육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1) 캐리그마(kerygma)와 디다케(Didache)

2) 카테키시스(catechisis)

3) 이교 문화에 대한 도전등이다.[137]

과거교회가 후기시대로 접어들어 점점 가르치는 교회의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교육의 중심 내용은 차츰 카테키시스 형태로 자리잡혀 갔다. 카테키시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입문교육, 교리문답 교육등으로 번역되는데 구전을 통해서 입문적 기초지식을 문답식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가르치는데 쓰였다.[138]

이러한 배경에서 나타난 교육기관이 초신자 세례준비학교(catechumenal school)이다. 이 학교는 로마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기전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엽에 설립된 것으로 개종자들을 교육했다.

그 후 3세기에 들어서면서 정규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하여 남녀노소와 국적을 초월하여 새신자들을 교육하므로 이곳에는 세례 예비생들(catecharnens)만이 입학할 수 있다.[139]

이 학교의 수학기간은 2년~3년이고 학생들은 3등급으로 나누어서 등급별로 학급을 설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초급반(Hearers:청강반)은 성경낭독을 경청하고 설교를 경청케하여 근본적인 기초 교리와 신앙생활의 원리를 터득케 했다.

중급반(Kneelers:기도반)은 수업후에 기도하도록 요청되었다. 그리고 상급반에 진학하려면 생도들의 생활규범이 상급반에 합당하다고 증명되어져야 한다.

---

137) L. Sherrill, op. cit., pp. 145-153.
138) 오인탁외 4인, op. cit., p.131.
139) 김영규, op. cit., p. 60.

고급반(the chosen:선별반)은 보다 고차원적인 교육이 실시되는데 주로 교리와 예배 의식과 세례에 필요한 예비훈련이 있었다.

이 학교의 교사는 초기에는 감독과, 사제와 집사들이었으나 후에는 전담강사나 교리문답 전문교사들이 주로 교사로 활동하였다 때로는 탁월한 평신도들도 이에 참여하였다.

또한 새신자를 지도하는 교사학교(Catechetical school)로 오늘날 신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서 당시 헬라의 회의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학문을 연마했고, 또한 이곳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신조를 작성해 내기도 하였다.[140]

그리고 예수님을 승천후부터 4세기까지는 교회가 로마제국의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은밀한 지하에서 드리는 예배도 기독교의 기능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한 교육으로는 다음 두가지 예배를 돌볼 수 있다.

(1) 학습예배 (Missa Catechumenorum)

이 예배는 전교인을 포함한 예배로써 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듣게 하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쳤다.

(2) 전도예배(Messa Fidelium)

학습 예배가 끝난 후 학습 교인은 돌아가고 세례 교인만 남아서 성례중심의 예배를 드린다.

---

140) 신학교재 편찬위원회편, 「간추린 기독교 교육학」, 세종문화사, 1983, pp. 42-43.

Ⅳ. 과거교회와 현대교회의 새신자 교육 비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개척교회와 전도를 주로 했기 때문에 항상 새신자를 상대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커리큘럼과 교육내용, 교육방법들을 비교해 보면서 바람직한 한국교회 새신자 교육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고자한다.

1. 교육 과정

현재교회에서 향하는 새신자 교육의 교육과정을 보면 신약시대의 교육과정과 같지 않다.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고 초대교회 당시는 이렇게 교리적으로 또는 조직신학적으로 하지 않았다. 처음 이십내지 삼십년 간에는 전혀 교재가 없었으며 그 후 바울 서신이나 복음서를 교재로 있을 석이다. 그러나 교재는 없었지만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은 구약시대부터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해 내려오는 삶과 구두로 교육을 했을 것이다.

박상진 목사는 "새신자 양육에 대한 기독교 교육학적인 이해"[141]라는 논문에서 김명룡 교수가 "신앙의 성장과 교리적 처계에서 주장한 기독교 교리 8항목(계시록과 성서론,신론, 창조론과 인간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을 듣고 새신자 교육 내용은 이런 조직신학적 순서보다는 구원론적 순서가 더 적합할 것이라고 다음의 교과과정을 제시했다.

(1) 하나님의 속성 : 사랑의 공의, 인간의 범죄와 타락, 죄의 본질과 그 결과, 율법과 선행, 타종교의 문제,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 믿

141) 박상진, "새신자 양육에 대한 기독교 교육학적인 이해".새신자 목회 I .1992., pp.72-73.

음, 구원의 확신 성령과 성령충만, 성화, 하나님의 말씀(성서), 기도 교회의 본질과 사명, 성례 (세례와 성찬)

(2) 선교 : 증인됨, 그리스도인과 가정, 그리스도인과 사회, 그리스도의 재림, 박무종목사는 " '신자 교재에 대한 비교분석'142)에서 장로교 , 감리교, 침례교, 기타 및 선교단체의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맺은말에서 교재가 본문이 되고 성서 본문이 참고서로 전락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성서가 본문이 되고 교재가 참고서가 되어야 한다.

루터의 해석 방법처럼 특정 교리나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말씀을 해석하도록 해야한다. 말씀에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 고 아주 잘 지적했다.

이 두가지 제안, 혹은 기존 여러 교회와 선교 단체들이 행하는 새신자 교육의 교육과정는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 즉 같지 않다면 어느것이 더 타당한가! 아니면 어느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성경 어느 책이 새신자 교육 교재인가! 책들 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왜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조직신학적 교리적 혹은 구원론적인 새신자 교육 교재를 만들지 않았을까.

사실은 모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당시는 교재가 전혀 없어도 신자가 되었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랐다. 교리화 시키고 체계적이 되고 서로 보완하며 한쪽에 치우쳐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누가 어느 관점에서 어떤 자료들을 모아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교파에 따라 믿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은 이천년 교회사에서 이단 시비, 현재 수많은 교파, 지급도 끊임없는 이단 시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수많은 교재들이 말해 주고 있다. 성서로 돌아가자는 구호는 자기 마음대로, 아전인수식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경구절만 뽑아 자기들이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려고 텍스터 푸르트 하는 것이란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성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싫은 곳, 껄끄러운 곳, 모두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서 한 권을, 복음

---

142) 박무종, 「개인전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소망사,1979.

서 한 편을, 서신 한 권을 읽고 가르치고 공부해야 하며 설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인쇄기가 발명된 15세기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량의 신·구약 전부는 그만두고 신약 성경 전부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신약 성경 27권이 발표될 때까지 거의 4세기 동안도 어느 교회 공동체는 복음서 하나 혹은 둘, 바울 서신 등 하나 혹은 둘 그것도 모일 때 어느 부분을 잠시 읽어주고 들을 뿐이다. 개인이 가질 만큼 흔하지 않았다. 복음서 하나 가지고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충분했고 구원얻고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지금처럼 여기저기서 같은 구절들을 골라내어 교리를 만들고 틀을 맞추지 않았고 별도의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지도 않았다. 지금도 유적지에 안아있는 동굴교회의 벽화 천정에 그리고 그리스정교 회당들의 벽면에 그려진 모든 성화는 그림으로 성경 이야기를 나타내 그림만 보고 성경을 다 읽도록 했었다.

둘째, 성령께서 각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당시는 글이나 책을 사용하는 사회가 아니었다.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쓴 것은 자기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신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나 글에 있지 않고 삶 자체를 변화시켜 사람들을 글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 예수님은 토라(율법종교)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새로운 토라를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글로 남기지 않으셨다. 교회는 율법, 경전이나 성경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었다. 즉 말씀(율법)이 육신(삶 자체, 인격)이 되신 예수를 믿기에 새로운 율법이 문자로 필요없고 성령의 사람, 즉 삶으로 이루어졌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 이것이 토라 유대종교나 다른 경전, 종교와 다른 독특한 기독교 교회

공동체였다. 특히 한국교회는 적용 즉 삶의 부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음미할 부분이다.

만약 또 하나의 지적인 "교재가 본문이 되고 성서 본문이 참고서로 전락되지 않도록하고 성서가 본문이 되고 교재가 참고서가 되도록 하려면" 교재를 따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교재 만드는 것 자체가 교리화 작업이요 성서 본문을 참고로 하는 작업이다. 성경책 한 권 선택한다. 사실은 성경 본문 자체가 설교인데 또 설교하면서 성경 분문을 참고로 해 버릴 경우가 있다. 우선 성경 본문 선택부터 인위적이어서 자기들 필요한 것만 골라 편식한다. 정작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곡해하고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근본적 실수가 이기서 나온다. 말씀의 해석도 어느 교파 입장에서서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느 누가 예수님이나 바울보다 더 좋은 교재를 만들 수 있겠는가? 로마서보다 더 좋은 교재를 누가 만들 수 있겠는가?

2 교육 내용

사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 에수님도 초대 교회 사도들도 그들의 교육내용은 단순했다. 즉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였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 30여년간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실행하는데 노력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재현하는 것이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 이 공동체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고 그대로 살도록 가르쳤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야기나 생애 등은 기록이 거의 없고 바울이 복음서나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짐작이 간다. 누가의 입을 빌려서 사도행전에 단 한 마디 나올 뿐이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143]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새신자에게는 특별한 교육이 없었다. 복음 즉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인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이 나라로 초청하는 것이므로 단순했다. 필요한 것은 이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일 뿐이다. 이것은 국적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나 교육 보다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고 국적을 바꾼 다음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래서 기록된 서신마다 이 환난에 견디라는 권고요 나중에 나타난 복음서도 환난에 대처할 기본 모델을 제시하여 환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그 환난을 통과하여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환난을 잘 견디자는 책이다. 그 환난은 죽기까지 이므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라. 그러므로 신자의 생활,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에 몸을 두고 살려하는자는 당연히 반대와 핍박을 당하게 된다. 이 핍박에 바울처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144]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성도의 삶이다. 그러나 그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고 저 하늘나라의 영광의 잔치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 예표로 주신 것이 마지막 만찬이다.

오늘의 교회에는 왜 핍박이 없는가

사도행전 17장 6절, 데살로니까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찾다가 야손과 몇 사람을 붙잡아 치안관에게 끌고가 한 말이 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아나스타토 산테스"를 영어 표준 개역(RSV)은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

143) 사도행전 20:35.
144) 고린도후서,15:31.

의 교훈대로 살면 핍박이 일어나야 정상이다. 아니면 하나님 나라 질서가 아니고 세상나라 질서다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이유를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라는 랍비가 소개한 하나님의 나라 질서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였다. 그대로 하면 모든 경제 질서,정치 질서가 다 뒤집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를 죽였다라고

바로 예수님은 세상을 뒤엎어놓은 분이요 그를 따르는 자들은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어 업고 다녔다. 즉 이 세상 나라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바꾸어 갔다.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까지 내주고 왼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도 내밀고, 죽으면 살고 살면 죽고, 부자는 화가 있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우는 자는 복이 있고, 웃는자는 화가 있고,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겨야 하고, 첫째되면 꼴찌되고, 나중된 자 먼저되고, 먼저된 자 나중되며, 얻고자 하면 잃고, 잃으면 얻고, 내어주면 가슴 가득 안겨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 전부 뒤 바뀐 질서이다. 바로 이 뒤바뀐 질서를 실현하도록 부름 받은 곳이 교회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을 이 세상 질서로 향유하고 거기에 덧붙여 하늘나라 축복도 향유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예는 역시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이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하였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145] 이 사건 다음 야고보와 요한의 좌우 정승을 요구한 사건에서 예수님는 자신이 이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힌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146] 그리고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 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바울도 예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147] 순교의 자리까지 따랐으며 베드로도 십자가

---

145) 마가복음 17:17-22..
146) 마가복음 10:45.
147) 빌립보서 3: 7-9.

를 지고 로마에까지 따라가서 거꾸러 매달려 죽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고 새신자에게 가르칠 내용이다. 만일 이런 것을 가르치면 새신자 얻기 힘들 것이고 오히려 다 떠나 버릴 것을 염려하여 축복의 약속만 한다면 꿩잡기 위한 고등사기이다. 예수님의 복음은 여기까지 퍼져왔다. 꿩잡는 데 매가 아니다 매가 아니어도 꿩을 잡을 수 있다. 꿩을 못잡아도 매는 매여야 한다. "이와 같이 복음을 변질시키면 그 때는 다른 복음이 되고 복음을 전하면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저주를 받는다.[148] 꿩을 못잡아도 좋으니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아야 한다.

3. 교육 방법

사도행전을 크게 둘로 나누면 베드로 중심의 팔레스틴 사역과 바울 중심의 이방 사역인데 전자는 3000명, 5000명씩 불어나는 대규모의 사역이고 후자는 소규모의 사역으로 일대일 사역의 모본이다. 양과 질의 문제인데 누구나 양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바울이 일대일 교육으로 이방인 중에 세운 교회가 있었기에 유대가 망할 때 팔레스틴에 있던 유대 기독교 공동체도 같이 사라졌지만 교회는 계속 없어지지 않고 퍼져나갈 수 있었다. 일대일 교육과 새신자 교육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교회는 새신자들을 나이 별로 편성하는 교회가 대부분이다. 유년부, 중등부 새신자들을 보통 나이별로 학년 별로 집어 넣는다 거기에는 모태 신앙도 있고 1년, 3년, 5년, 그 이상의 신자도 있지만 똑같이 새신자로 거기에 들어간다. 세상의 교육만도 못하다. 장년부는 더 가관이다. 아예 예배 출석하는 것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면에서 교회는 두 가지 형이 있다. 즉 고아원형과 가정형, 베드로형과 바울형이다. 잘 아는대로 바울 형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148) 갈라디아서 1:7-8.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수 있으리라.[149]을 택했다. 각 교회가 이 모델을 택한다면 나중에는 숫자도 만족할텐데 단지 시간이 걸리므로 속전속결을 원하는 교회는 불만일 것이다.[150]

선교 1세기를 뒤돌아볼 때 한국교회는 베드로 형을 지향해왔으므로 외형적으로는 세계 속의 한국교회이지만 내실에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허약성을 보인다.

---

149) 디모데후서 2:2.

150) 정기덕, "성서에 나타난 새신자 교육", 새신자 목회Ⅳ, 서울:그린파스츄어,1995,pp.36-42.

V. 한국교회 새신자 교육의 실태와 개선 방안

농부가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나무의 자라온 상태를 점검하여 비료도 주고, 전지도하며 애정을 가지고 돌보아 줌같이 새신자 교육의 현주소를 잘 파악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하여야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원하는 지속적인 교회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1. 한국교회의 새신자 교육의 실태

1) 한국교회 새신자 교육

1886년 1월에 이화학당에서 처녀 12명과 부인 3명이 모여서 성경공부를 하였는데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장년 주일학교(새신자 교육)의 시초였다.[151]

초기 한국 교회 장년부는 주일마다 예배시간 한 시간전에 교회에 모여서 성경공부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회학교 장년부는 참석해도 좋고 안해도 좋을 정도의 성경공부가 아니라 누구든지 교인이면 응당 참석해야 하는 것이었다.[152] 비록 주일학교 장년부가 당시의 기독교 성인 교육 사업의 전부였지만 교회마다 장년부는 차고 넘쳤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 과거 교회의 성경공부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반을 이루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기독교인들이 순회전도를 통하여 늘어가게 되자 한국 교회는 이와같이 새롭게 들어오는 초신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시급하게 요

---

151) 곽안전, "한국 교회사",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73, p. 60.
152) 최경락, "한국 교회학교 장년부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부천: 서울 신학대학 대학원, 1980, p.9.

청되었다. 그래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며 신앙훈련을 지도하여야 하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선교사들의 힘만으로 돌보는 일이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방법과 한국 상황에 맞추어 시작된 것이 지방 사경회였으며 이 사경회는 특별히 한국의 서북부지방의 교회를 강력한 교회로 만들고 새신자를 훈련하여 새로운 한국인 지도자들을 길러 내는데 큰 몫을 차지하게 되었다.

당시의 천주교 신자들과 비교할 때에 개신교 전반에 걸쳐 행하여진 사경회는 개신교 신자들로 하여금 성서의 번역, 보급 및 설교의 혜택을 충만하게 입게 하였다.

"예수 믿기를 작정한 사람은 성서를 탐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경회가 한국처럼 성행한 곳이 일찌기 없었다. 한국을 다녀간 외국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이와같은 사경회 중심의 한국교회를 :성서의 교회라고 칭찬하였던 것이다."153)

사경회는 원래 초신자들의 성경공부와 신앙훈련을 위한 모임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임이 성공적으로 한국인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선교사들은 사경회를 4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초신자 훈련 뿐 아니라 지도자 양성에도 이용하게 되었다.

첫째 : 한 선교지부 관할 지역 안에 있는 초신자들을 그 지역의 중앙교회에 모아 매년 겨울 농한기를 이용하여 사경회를 거행하였다.

둘째 : 개체 교회에서 따로 또는 인접한 몇 몇 교회가 합쳐서 지역적으로 열리는 사경회가 있었다.

셋째 : 직원 사경회라는 것으로 이 회합은 여름철 2-3주 동안 교회 직원들만을 위하여 개최되는 것이었다.

넷째 : 이상 3단계의 자연적 결과로 볼 수 있는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 교육이었다.

---

153) 민경배, "한국 초대 기독교의 교회 형태", 기독교사상, 기독교서회, 1974, p. 85.

사경회의 첫 번째 목적을 성경연구에 있었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초기 선교사들의 이러한 사경모임을 통하여 일선에서 일할 지도자를 양성하였고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하여 전도의 기회가 되어 양적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사경회를 오전 중에 마치고 오후에는 참석자 전원이 가가호호를 심방하여 전도하였다. 저녁시간에는 부흥 전도회와 대중 강연회가 열려서 불신자들이 초대되었으며 이 때에는 한국인 지도자들도 직접 부흥회나 강연을 맡아 인도하곤 하였다.[154]

한편 한국 교회의 기독교 교육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한국 개신교 선교역사 보다 20년이나 늦은 1905년에 선교 연합공의회를 설치하고 그 기구 안에 주일학교 위원회를 두어 만국통일공과를 편집하여 주일학교 공부라 칭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1933년까지는 미국의 만국통일공과를 한해 늦게 가져와 번역하여 사용하다가 1937년 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가 따로 통일공과를 펴내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을 전후하여 각 교단에서도 계단공과를 출간하였으며 1948년 기독교 교육협회가 통일공과를 출판하다가 1970년대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학생용 교재와 교사 지침서가 분리된 교재를 교단마다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어[155]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2) 새신자 교육에 대한 타교회 비교분석

타교회 새신자 교육을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새신자교육을 파악할 뿐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새신자 교육과정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

154) W.C. Eramam, "Bible Classes and Bible Institutes," 팜플렛 No. 10, No. 12, December, 1914, p.366.

155) 김재은, "기독교 교육 교육과정의 변천",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 신학과 세계, 17호, 1988, pp. 338-342..

실제적으로 필요한 제도나 방법은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려고 한다. 156)

먼저 각 교회의 새신자 교육체계를 구조화하여 비교해 보고 새부조직과 운영을 항목별로 비교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하나의 바람직한 새신자 교육 모델을 제시한다.

(1) 새신자 교육체계 비교

새신자 교육과정은 새신자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교회의 온전한 교인이 되기 까지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고 나름대로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몇 교회를 실례로 들어 새신자 교육체계를 구조적으로 비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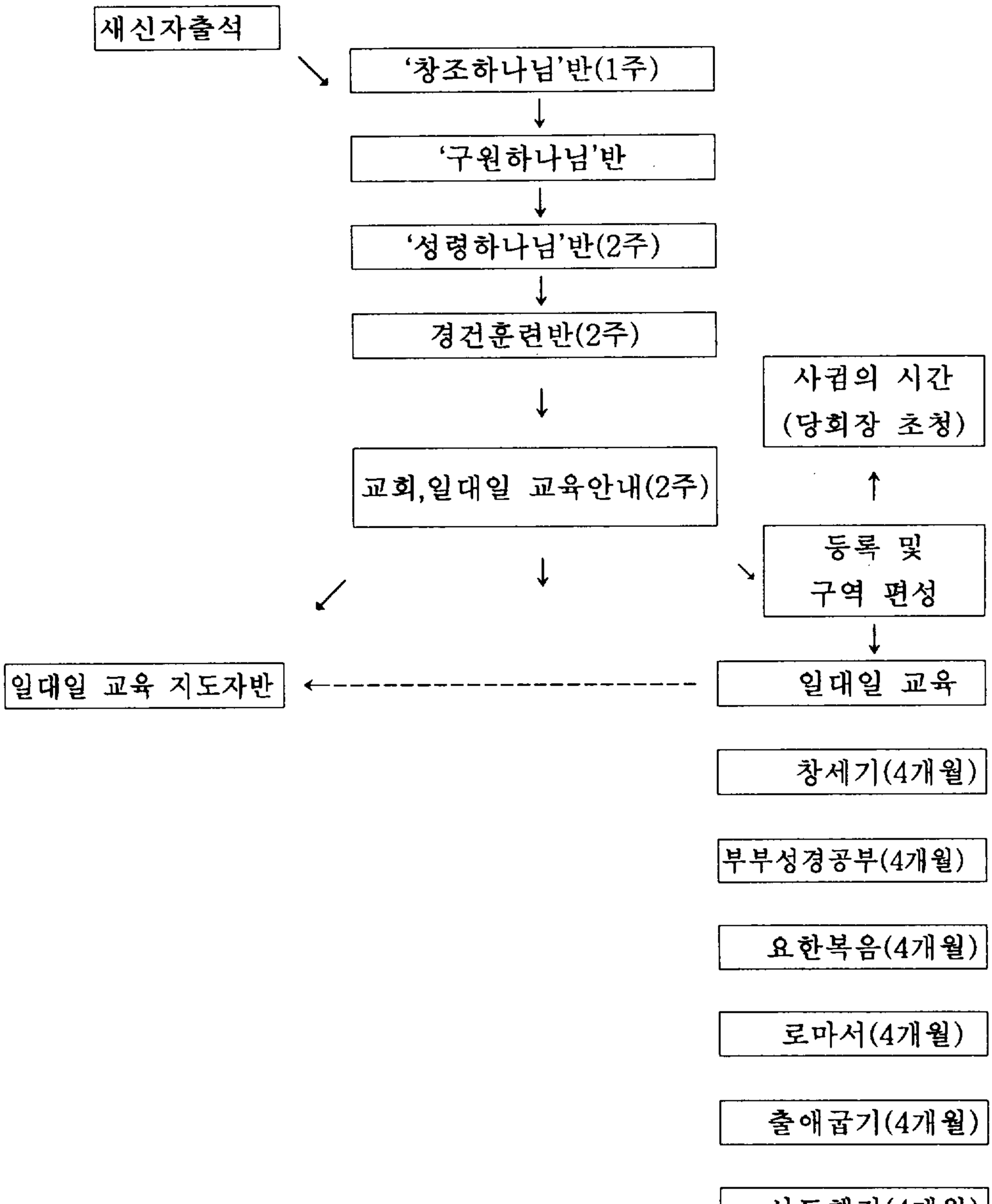
---

156) 박상진, "새신자 운영에 대한 타교회 비교연구", 새신자목회: 도서출판 이레, 1993, pp.41-52.

① 노량진 교회

등록	본당 현관에서 등록위원에게 등록한다.
↓	
안내	성가대 앞 좌석으로 2명의 환영위원이 안내한다.
↓	
환영	예배시간에 교회 앞에 환영한다.
↓	
영접	예배가 끝나면 성가대석 앞 문을 통과하여 영접실로 안내한다. 등록용지에 누락된 사항을 파악하고 심방 약속을 한다. 신입교우부 안내 책자를 분배하고 신입교우부 성경공부 참석을 권면한다.
↓	
분류	기관별로 분류하여 교육위원에게 통보한다.
↓	
등록후 일주일	월요일:전화방문, 환영, 방문가능여부조사, 방문시간약속 교육서신발송 : 환영편지, 교육위원소개, 신입교우부 성경공부안내,금, 토요일 : 교육위원과 교사의 전화 (주일예배 참석 권면, 성경공부반참석권면)
↓	
방 문	
↓	
교육서신	12주간 발송
↓	
성경공부	8주간 실시
↓	
교육위원	교회출석권면, 신입교우 성경공부 참석권면, 자치단체를 소개하고 안내, 교회봉사안내, 구역안내

② 온누리 교회


새신자출석
'창조하나님'반(1주)
'구원하나님'반
'성령하나님'반(2주)
경건훈련반(2주)
교회,일대일 교육안내(2주)
사귐의 시간
(당회장 초청)
등록 및
구역 편성
일대일 교육 지도자반
일대일 교육
창세기(4개월)
부부성경공부(4개월)
요한복음(4개월)
로마서(4개월)
출애굽기(4개월)
사도행전(4개월)

③ 영은교회

(1) 전도

전도폭발(8기)
개인전도
목요노방전도

(2) 영접

새신자 관리부 등록
월1회 마지막주 환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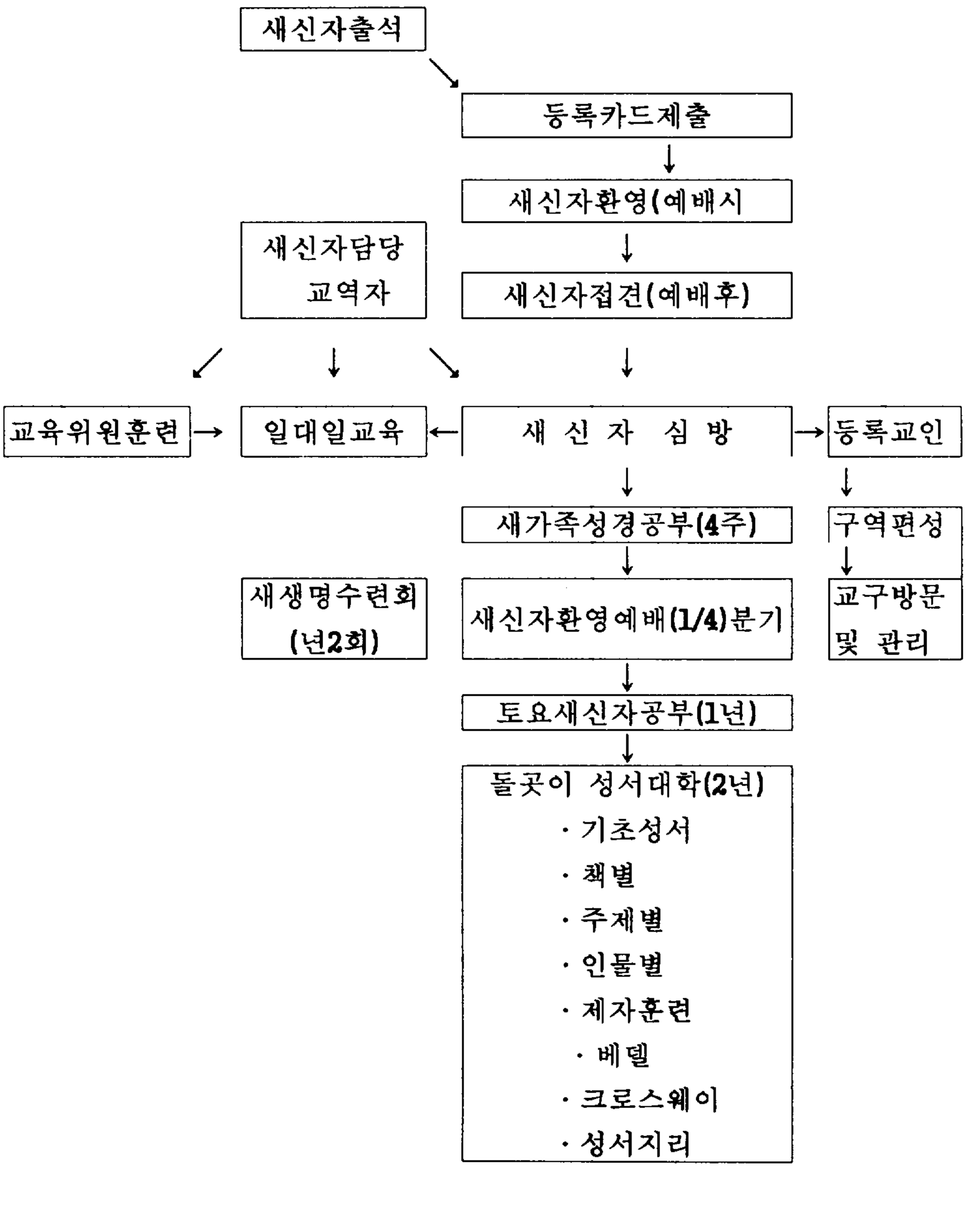
(3) 관리

새신자 통신교육 : 엽서12주간(초급,중급,고급)
교육요원을 통한 일대일 교육
교육반에 등록(주일 성경공부반)

(4) 교육

성경공부반 등록
1단계 : 일대일 교육
교육성서반
성서통독반
2단계 : 권별성서반
Q.T반
기독교교리반
마태복음반
기도반(1)
3 단계 : 8개월반
4 단계: 8개반
영은성서대학 : 5개과

④ 장석교회



이상과 같이 4교회의 새신자 교육 체제를 파악해 볼 때, 노량진교회의 경우는 교육위원의 활동이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일대일 양육보다는 자치단체와의 연계와 교회소개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면 방문과

새신자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문 및 교육중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온누리 교회는 상대적으로 방문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고 대신에 등록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9주 새신자교육과 일대일 교육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교육 중심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온누리교회의 목회적 특성과 지역적 특성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지역교회라기 보다는 선교단체의 경향을 띤 개성있는 교회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교인이 되는 등록과정(교회공동체의 입구)부터배우고 훈련받기를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온누리교회 전체 목회의 특징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주보 (1991.1.20주일)을 참조해 볼 때 주일 출석인원보다 교회창립 이후 교인으로 등록된 숫자가 더 적은 것은 교회출석과 교회등록을 분명히 구분지어 확실한 온누리 교회 교인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새신자 교육과정임을 알 수 있다.

영은 교회의 경우는 지역교회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선교단체의 장점을 받아들여 교육을 강조하는 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교육 성경공부가 등록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의 교회처럼 강하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장석교회의 경우 위와 같은 새신자 교육 체계로 시행된 것이 불과 2-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지역교회로서 일반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기에 방문중심체제이며 여기에 새가족성경공부, 토요새신자공부, 돌곶이 성서대학으로 이어지는 교육과 교육위원들을 통한 일대일 교육, 그리고 새신자 환영예배 및 새생명수련회 등 목회적 행사를 덧붙인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교회들의 새신자 교육체계는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적 특징, 목회자의 목회철학,

교인의 특성,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고려하지 않는 모방은 더 큰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독특성 속에서도 새신자 교육과정이라면 공통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는 데 ① 새신자부 조직 ② 새신자 등록, 환영 및 접견③ 새신자 등록 방문 ④ 새신자 성경공부 ⑤ 새신자 교육 ⑥ 새신자와 학습, 세례 ⑦ 새신자의 계속교육 등이다.

(2) 새신자부 조직 및 운영 비교 분석

교회마다 새신자에 관련된 일을 맡고 있는 조직형태가 다양하다. '새신자부'라는 전담부서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조직이 없는 경우도 있고, 평신도가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직은 교회의 규모나 목회방침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신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새신자부에 헌신된 교회의 일꾼들이 필요하다. 얼마나 새신자요원들이 잘 조직되고 훈련되었는냐에 따라 사실상 새신자부 사역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노량진 교회는 새신자부 명칭을 '신입교우부'라고 하였다. 새신자만이 아니라 타교회에서 전입해온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명칭이다. 전담교역자가 있으며, 신입교우부 안에 등록위원, 안내위원, 영접위원, 상담교육, 심방봉사, 서기, 회계를 두고 있다. 이들 각자가가 자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신입교우부 성경공부 안에 많은 교사들이 있어서 매주일 교육과 예배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의 새신자부 조직은 독특하다. 새신자교육부, 새신자교제부, 은사관리부, 새신자상담부 등이 있으며 일대일 교육부는 성인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다. 성인교육부에 담당교역자가 있으며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이, 각 부에는 부장, 차장이 있다.

그러나 사실 온누리교회의 새신자부 조직은 주일 성경공부반인 온누리반 조직이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다. 9주 과정의 성경공부를 거쳐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도하는 교역자(평신도)에게 큰 비중이 있고 새신자교육위원회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가지 특기할 것은 이 위원회에 활동하는 위원들은 자원하여 신청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은교회는 '새신자관리부'로 되어 있다. 제직회 내에 선교와 심방 영역이 있고 그 안에 국내선교부, 해외선교부, 심방부, 새신자관리부가 속해 있다. 새신자부 담당 교역자가 있으며 새신자 관련 행정적인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장석교회는 새신자부 담당교역자의 지도아래 부장과 차장, 그리고 부원이 있으며 23명의 교육위원이 있다. 이를 다시 분과로 다시 조직하고 있는데 환영분과, 심방분과, 새가족성경공부분과, 행정분과, 교육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과별로는 책임자가 있어서 역할분담을 효과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각 교회의 새신자부 조직과 운영을 일목 요연하게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새신자부 조직 및 교육비교

교회 / 항목	노량진	온누리	영 은	장 석
1. 새신자부 명칭 및 조직	신입교우부 · 등록위원 · 안내위원 · 영접위원 · 상담교육 · 방문봉사 · 서기 · 회계	새신자 교육위원회 · 새신자 교육부 · 새신자 교제부 · 은사관리부 · 새신자상담부	새신자관리부	새신자부 · 환영분과 · 심방분과 · · 새가족성경공부분과 · 행정분과 · 교육분과
2. 등록, 환영 및 접견	· 교회현관에서 등록 · 예배시 새신 자석 별도 마련 · 예배시 교회 앞에서 환영	· 등록카드 기재가 아닌 성경공부 신청서 비치 · 9주 온누리반 과정을 모두 마친 사람에 한해 등록 교인이 되고 주보에 명단 기재	· 예배후 새신자실로 안내 · 그곳에서 등록-구역연결 · Q.T반이나 교육반 연결	· 새신자 안내석에서 등록 · 예배시 환영 · 예배후 접견실에서 장석 교회 소개 및 안내
3. 등록 방문	· 월요일에 전화 방문 및 약속 인도자 및 방문봉사대원과 함께 방문	· 등록 후 교구에 편성되면 교구에서 방문	· 교구담당교역자가 교육요원, 구역장,인도자와 함께 그 주간에 방문	· 새신자 담당 교역자가 그 주간에 방문 권사와 교육위원과 함께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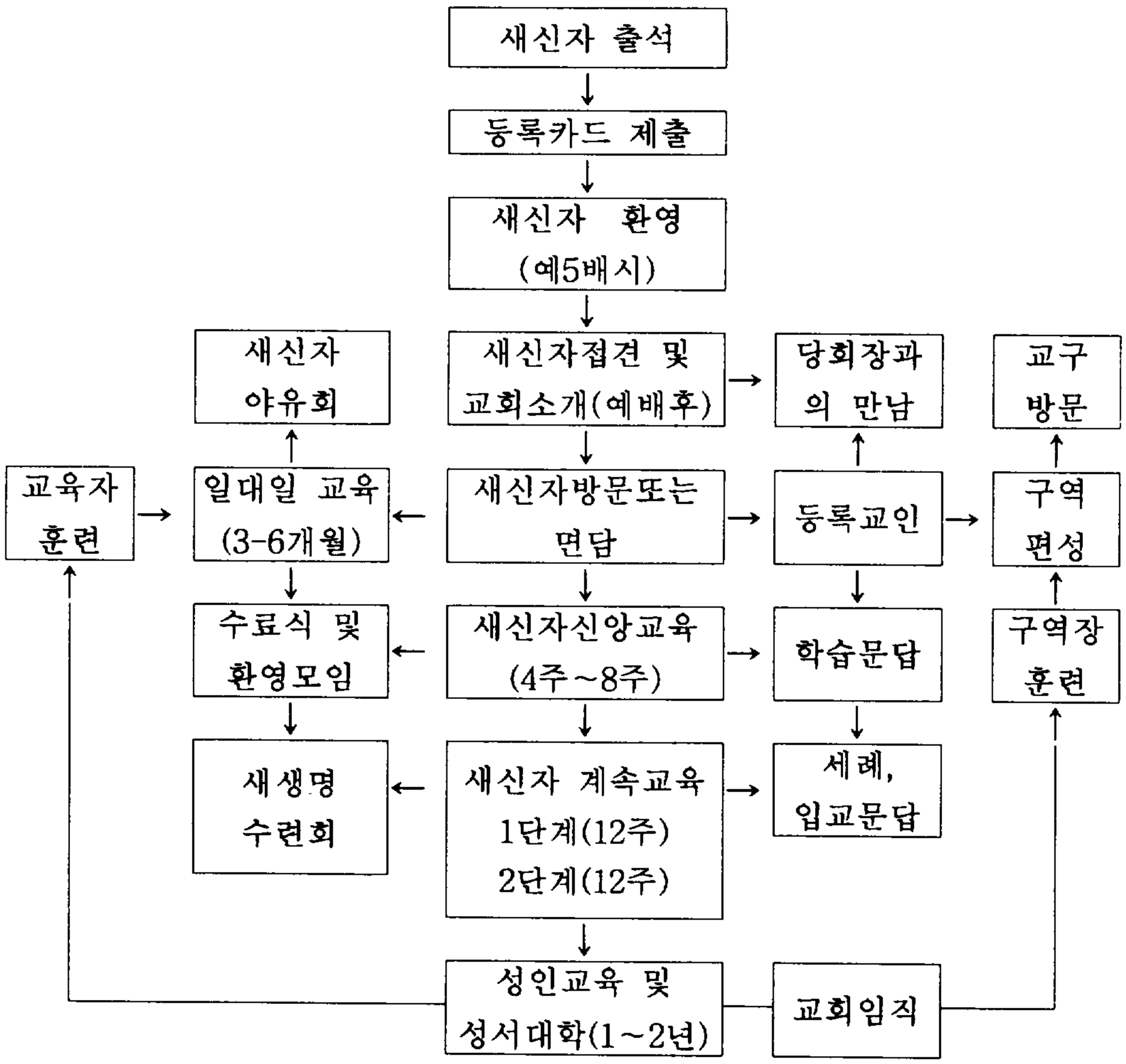
교회 / 항목	노량진	온누리	영 은	장 석
4. 새신자 성경공부	신입교우부 성경공부- 6주 1.하나님 2.사람의 문제와 하나님의 해결책 3.구원의 확신 4. 말씀 5, 기도 6. 교회와 예배 7.새로운 삶 8.그리스도의 주님 되심	온누리반 - 9주 1.창조 하나님 -1주 2.구원 하나님-2주 3.성령 하나님 4.경건훈련-2주 5.교회 일대일교육 안내-2주	일대일 교육반 12주 : 새신자 교재:일대일양육성경공부 Q.T반-12주 기존신자	새가족성경공부 -4주 1. 4가지 영적인 원우리 2.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요? 3.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4.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5.새신자 성경공부	자치단체에서 교육위원 파송 출석교인 및 교회 안내 자치단체와의 연결도모	지도자반에서 교역자로부터 일대일 교육훈련을 받은 평신도가 담당(기간 4개월)	·훈련받은 교육요원들이 1:1로 교육(3개월) ·교육서신 박송	·훈련받은 교육요원들이 새신자를 1:1로 교육(3개월) ·3개월 동안 교육일지 작성 ·주일 출석확인 ·새생명일일수련회(년2회)
6.환경예배 및 환영모임	환영예배 (년1,2회) 알곡축제-가을	등록한 사람에 대해 당회장 (구역)초청 사귐의 시간 매월 마지막주 2부 예배시 환영식	첫 예배 후 새신자부실에서 등록하면서 구역편성	등록방문후 구역 편성 주보에 자치단에 기록 환영모임시 자치회 소개시간

교회 / 항목	노량진	온누리	영 은	장 석
7.구역및 자치 기관과의 여계	· 등록 방문 후 방문카드를 편성 · 심방카드를 연합구(교구)로 편성 · 주보에 자치단체 기록	· 등록 후 교인등록 카드를기재하면 교구 편성 · 친교회와 위원회에 자원하여 참가	첫예배후 새신자부실에서 등록하면서 구역 편성	등록방문후 구역 편성 주보에 자치단체 기록 환영모임시 자치회 소개 시간
8.학습,세례 과정	· 학습 및 세례고부를 새신자부에서 주관 · 신입교육부 성경공부는 학습교 면제	· 학습과정안 없음 세례는 등록교인으로서 신청서 제출 및 세례문답후 · 세례식 때 간증나누기	· 학습 공부와 세례 공부를 별도 실시 (각 2일)	· 새가족 성경공부 · 수련자에 한해 학습문담 신청가능 · 세례받은 성례 주일전 4주 교육(년4회)
9, 새신자의 계속교육	· 장년1부(50세이상) · 성경공부 장년2부(50세미만)성경공부	· 주일성경공부 창세기-4개월 부부성경공부 요한복음 로마서 출애굽기 사도행전 주간성경공부 인물별 성경공부 교리별 성경공부 책별 성경공부	· 4단계훈련과정 · 영은 성서대학 (5개과)	· 토요새신자공부-1년 · 들곳이 성서대학 -2년 · 기초성서연구과책별성서연구과베델성서연구과 와 크로스웨이 성서 연구과 제자훈련성서연구과성서지리연구과

(3) 바람직한 새신자부 운영 모델

교회마다 여건이 다르고 목회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바람직한

새신자부 모델을 찾기를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앞의 논의를 토대로 한 국교회가 보편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구 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방문 및 교육을 병행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3) 새신자 교재에 대한 비교 분석[157]

교회는 저마다 교회교육을 강조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

157) 이용남, op.cit., pp.127-137.

기성 교인들을 대상으로 성숙을 목표로 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많은 변화를 얻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새신자에 대한 관심, 특히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기초과정을 소홀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매주일 교회마다 새신자가 등록을 하지만 이들이 등록한 교회에 정착하는 비율은 지극히 낮으며, 또 이들을 위한 기초적이고 체계적이며 성서적 기반이 든든한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 새신자를 바람직하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교회환경, 그리고 교재가 필요하다. 특히 새신자 교재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심도있는 교육을 통하여 좋은 교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바람직한 새신자 교재의 개발을 위한 기초작업의 하나로써 지금까지 간행된 여러 교재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주제에 대한 연구 범위는 시중 서점에서 최근 구입 가능한 새신자 교재와 시내에 있는 예장 통합측 7개 교회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교재로 제한하였으며,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방문이나 전화문의 보다는 교재 그 자체를 가지고 비교 분석하였다. 따라서 실제 교회에서 새신자를 교육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도 있음을 전제하였다.

(1) 교육 커리큘럼 평가의 일반적 기준과 목표 평가 기준

A. 일반적 기준

① 목표 이해의 타당성 : 교단이나 교화가 내세우고 있는 있는 신학적, 선교적, 목회적 방향이 분명한가 ?

② 성서적 배려 : 성서해석의 원리가 타당한가 ?

③ 교사들의 수준 : 교재를 가지고 교수 할 교사들의 수준과 교육내용이

보편 타당성이 있는가 ?

④ 학습내용의 타당성 (표현의 문제) : 도입, 내용, 목표에 대한 학습내용이 적절한가 ?

⑤ 효과적 매세지 전달 : 각 과정에서 목표로한 메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가 ?

B. 목표 평가기준

① 독특성이 있는가 ?

② 계속성이 있는가 ?

③ 행동화 시킬 수 있는가 ?

④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가 ?

(2) 새신자 교육의 비교분석

A. 표면적 분석

지금까지 시중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거나 개교회에서 자체 편집, 제작, 또는 집필한 많은 새신자 교재가 있지만 연구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39권이었으며 이를 분야 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발행처에 따른 분류

일반출판사	선교단체	연구기관	총회			개교회 (통 합)	논문	계
			통합	기감	기침			
7	3	2	3	1	3(8)	9(14)	1	29(39)

② 발행년도에 따른 분류 (초판분류)

73년	78년	79년	82년	83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이상	계
1(6)	2	1	4	1	2(7)	6	2	2	5	2	2	39

③ 발행권수에 따른 분류

단권	2권	3권	기타
17	2	3	1

④ 내용에 따른 분류

새신자용	지도자용	새신자 관련 안내용	논문	계
34	1	3	1	39

B. 새신자 교재의 목차비교

① 교파별 비교

a. 예장통합 새신자 교육 교재

□ 새로운 삶 I - 무엇을 믿는가 ? (총해 교육부 82. 6. 30)

제1과 / 하나님은 누구인가 ?

제2과 / 사람 이란?

제3과 / 예수 그리스도

제4과 / 믿 음

제5과 / 성 령

제6과 / 거듭남

제7과 / 성 령

□ 새로운 삶 II - 새로운 관계 (총회 교육부 82.6.20)

제1과 /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2과 / 예　　배

제3과 / 청지기 생활

제4과 / 교회의 사명

제5과 / 교회 생활

제6과 / 장로교의 교리

제7과 / 장로교회의 지교회

제8과 / 주기도,사도신경,십계명

b. 기독교 한국 침례회

□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신자 생활 : 교회훈련부편 침례회출판사 (86.4.25)

제1장.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 ?

제2장.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가 ?

제3장. 복습

1. 구원의 확신　2. 침례.　3. 성경.　4.기도

5. 전도　　6. 헌금　7. 성령　8. 교회

② 선교단체 및 기타

○ I. V. F - 초신자용 성경공부 교재

• 새로운 삶의 길 (78. 10.30)

I 새로운 출발.....제 1 과 / 새생명,　제 2 과 / 구원의 확신

II 새로운 발견.....제 3 과 / 두 가지 성품, 제 4 과 / 성령의 능력

III 새로운 특권.....제 5 과 / 말씀, 제 6 과 / 기도

Ⅳ 새로운 관계.....제 7 과 / 시험 제 8 과 / 구별된 삶 제 9 과 /친교

ㅇ 에벤에셀 선교회 - 신앙육성 교재 (1)

• 기본 진리편 / 신앙생활의 첫걸음 (89.9.5)

제 1 과 / 성경에 관한 진리

제 2 과 / 하나님의 구원방법

제 3 과 /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

제 4 과 / 헌신의 생활

제 5 과 / 시험을 이기는 생활

제 6 과 / 기도하는 생활

제 7 과 / 크리스챤의 인격형성

제 8 과 / 그리스도의 증인

ㅇ 초신자를 위한 성경공부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파토 제프리 지음,

정동섭옮김-두란노(86. 5. 15)

1.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인 입니까?
2. 당신은 잃어진 죄인이었다.
3.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4.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5. 당신은 회심했습니다.
6.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7.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8. 당신은 죄서함 받았습니다.
9. 당신은 화해되었습니다.
10. 당신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11. 믿음으로 말미암아
12. 당신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습니다.
13. 확신

14. 당신은 당신의 구원을 상실할 수 없습니다.
15. 교회에 소속함
16. 예배하라
17. 전파되는 말씀(설교)을 들음
18. 성만찬
19. 세례
20.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삶
21. 성경공부(1)
22. 성경공부(2)
23. 기도
24. 증거(전도)
25. 하나님을 순종함
26. 시험과 환난(시련)
27. 마귀
28. 하나님을 기뻐함

③ 교회(예장 통합)별 비교

교회	비 교	교회	비 교
노량진	1.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2.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해결책 3. 구원의 확신 4.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5. 기도생활 6. 교회와 예배 7. 새로운 삶 8.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신 일	1. 성 경 2. 하나님 3. 예수 그리스도 4. 성 령 5. 교 회 6. 예 배 7. 전 도 8. 그리스도인의 생활 9. 이단종파 10. 믿음의 성장
영 은	1.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방법 2. 하나님의 속성 3. 성경을 아는 방법 4. 기 도 5. 그리스도인 임을 확신하는 방법 6. 전 도 7. 성령충만한 삶 8. 시 험 9.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장 석	반갑습니다. 장석교회 소개 및 안내 1. 4가지 영적인 원리 2.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 3.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4.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정 통	1. 구원 2. 하나님 3. 하나님의 말씀-성경 4. 기 도 5. 친 교 6. 시 험 7. 그리스도인의 삶 8. 사 역	충 신	1. 복음 - 참 기쁨의 좋은 소식 2. 생명의 말씀인 성경 3.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4. 믿음의 삶 5. 환영합니다.

④ 목차 비교 분석

위의 각 새신자 교재에 실린 목차를 살펴보면 대부분 조직신학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짧은 시간에 기독교 복음

올 가장 조직적이고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 방법이 조직신학적 체계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아울러 한국 교회의 교육이 그동안 교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교재에 실린 목차를 그 항목별로 묶어 다루고 있는 주제의 빈도를 알아본다.

○ 시중 서점 구입이 가능한 교재(7권)

하나님	예수그리스도	성경	사람	성령	거듭남	믿음	교회
7/7	7/7	7/7	6/7	6/7	5/7	4/7	4/7

○ 개교회 활동 교재(6권) - 노량진, 신일, 영은, 장석, 정릉, 충신

하 나 님	6/6	사 람	3/6	교 제	2/6
예수(믿음,구원)	6/6	교 회	3/6	시 험	2/6
성 경	6/6	예 배	2/6	사 역	1/6
새로운 삶	6/6	성 령	2/6	이 단	1/6
기 도	6/6	전 도	2/6		

위의 표에서 알수 있듯이 거의 모든 교재가 거의 비슷한 항목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다만 일반 교재에 비해 예장 통합측, 교회 교재의 경우 성령이 차지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새신자 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한국 교회는 새신자를 교육하는 일과 기존의 신자를 교육하는 일에 등한시 하게 되어 교인들의 지속적인 신앙 성장을 도모하지 못했다. 그 결과 교회를 떠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의 본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교회생활에 적응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새신자 교육은 교인의 신앙 성장의 기초라 할 수 있다. 가장 기초가 되는 한국교회 새신자 교

육 내용을 구분해 보면[158]

(1) 등록교인을 위한 교육

등록교인을 위한 교육이란, 새신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교회생활에 적응하도 도와주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교육의 내용으로는 첫째는 교회의 소개이다. 그 교회의 역사, 기본 목회 방향, 그리고 특징 등을 소개 해 주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교회생활이다. 그 교회 교인으로 생활에 갈 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예배, 교육, 남녀 선교회 및 기타 조직 등에 참여 할 수 있는 구체적 안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교육방법으로는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매주 새신자반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그 주일에 등록한 사람을 한 기로 분류해서 교육해 가는 것을 말한다. 등록 당일 예배 후와 다음주 두 주 동안 교육을 실시한다. 다른 하나는 등록 당일과 매월 마지막 주 중에 새신자 환영 일을 정해서 그 달에 등록한 사람들을 모아서 환영모임을 갖고 이를 통해 교육해 가는 것을 말한다.

(2) 학습교인을 위한 교육

이는 새신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습 받도록 준비시켜 주는 교육을 말한다. 이 교육 대상자로는 전입교인은 제외하고 초신자만을 포함한다.

교육방법은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습방법만을 특정기간 개설해서 교육해 가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자들을 훈련시켜 새신자 개개인을 교육 시키는 방법이다.

---

158) 이용남, 「교회 성장을 위한 새신자 목회Ⅳ」, 도서출판 그린, 1995, pp.161-164.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인의 집 〕

제 1부 그리스도인이 되는길

첫번째 만남 :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

두번째 만남 :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

세번째 만남 : 인간은 누구십니까 ?

네번째 만남 :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

다섯번째 만남 : 성령은 누구십니까 ?

제 2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길

여섯번째 만남 : 예수를 믿으십시오

일곱번째 만남 : 기도하십시오

여덟번째 만남 :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홉번째 만남 : 교회생활에 힘쓰십시오

열번째 만남 : 전도하십시오

(3) 세례를 위한 교육

이는 학습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받도록 준비시켜 주는 교육을 말한다. 이를 위해 세례반을 개설해서 등록하게 하고 교육 받도록 한다. 교인들의 형편에 따라 반을 운영하되 기본적으로 주일반과 평일반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육내용은 학습교육의 내용 범위를 확대 및 심화시켜 구성한다. 우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그 내용 범위를 유지하면서 내용의 깊이를 심화시켜 간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은 그 범위를 확대해서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어 간다. 이를 크게 두 부분으로 영역화해 갈 수 있을 것

이다.

제1부 교리편과 제2부 생활편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부 교리편

1.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2.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3.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4.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5.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인간 구원을 이루는가?

제2부 생활편

6. 구원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7. 세례란 무엇을 말하는가?
8. 교회생활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9. 가정 및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 세례문답을 위한 준비

위에서 본봐와 같이 교회로 전도되어 온 새신자들은 본격적인 교육의 대상이다.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구체적인 삶속에서 실현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 교회는 이를 위해 그 교회 실정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세심한 배려와 함께 교육해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신자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위한 우선 적인 배려를 위해 교육자는 물론 온 교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한국교회 새신자 교육의 제문제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없는 일은 없다. 특히 새신자 교육이 교회 성장의 초석이 되고 새신자들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이라면 사탄이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도 있게 마련이다.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새신자 교육과 평신도 훈련, 제자훈련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따로 떼어내어 생각하기가 사실 어렵다.

새신자 교육의 문제점이 곧 평신도 교육과 제자 훈련의 문제점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서로 연관이 있으며 교회 성장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새신자(평신도)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새신자를 위한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다. 교회학교에서 평신도(새신자)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는 선행연구 및 최경락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장년들의 교육에 관한 무관심과 시간, 지도자의 부족과 시설 및 예산 부족 조직상의 문제점과 교육자료의 부족 및 그밖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159]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에서 장년들의 교육에 관한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160]

1) 교육에 대한 무관심

보통 평신도라고 하면 자신이 앞으로 아무런 발전과 소망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장년이 되면 남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 한다. 이들은 완전한 존재처럼 생각하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

---

159) 최경락, "한국 교회학교 장년부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졸업 논문 서울: 서울신학대학 ,1980.

160) 고현봉, "교회성장의 길",복된 말씀, 20권 3호,1973,p.71.

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장년이라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현재도 자라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교회학교 장년부 교육에 관한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 교육 시설의 문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장소가 없어서 교회학교 장년부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교육관 시설이 있다고 대답한 교회가 63.5%이며 없다고 대답한 교회가 36.5이다.[161] 그러나 농,어촌 교회와 개척교회 일수록 대부분 교육관 시설이 구분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교육관 시설이 있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한정된 건물 안에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가 있으며 그리고 예배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하고 보면 도저히 교회학교 장년부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기독교 교육의 시설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 발달은 기독교 교육과 예배와의 차이를 구분짓지 않는 관념적인데서부터 시작된다. 교회에서 시행자는 기독교 교육의 방법이 일반 예배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여 연령별로 구별된 또 하나의 예배행위를 집행하면서 이를 지칭하여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로 부르면서 주일학교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명으로 부르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교회학교 시설을 생각할 때 기껏해야 넓은 방에 의자와 소형 강대상 하나 준비해 두면 된다는 사고 방식이 보편화되어 교회학교 교육을 능률적으로 돕는 시설이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162] 이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 새신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161) 고현봉, op.cit., p.71.
162) 이원회, "기독교 교육의 시설과 교재의 문제점", 기독교 교육,1975,9, pp.13-14.

3) 조직상의 문제

교회에는 여러 조직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회학교가 있으며 여전도회, 남전도회, 제직회, 선교부, 전도부, 교육위원회등 여러 기관이 있다. 이것은 어떤 기관에 예속시키느냐에 따라 인적 지원과 함께 예산이 뒤를 받쳐 주어 새신자 교육의 승패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 된다.

4) 지도자의 문제

우리나라 교회학교 장년부 교육의 부진한 요인을 여러면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교사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 교수는 교육 행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중의 하나가 "교사는 교육의 열쇠가 된다."[163]

고 말했듯이 교회학교 장년부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위치와 역할은 대단히 귀중한 것이다. 그러나 개 교회의 교회학교 장년부 교사들은 대부분 담임교역자 또는 교육목사나 부목사가 많고 큰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교사로서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나 교육을 받는 출석 인원에 비하여 그 수효가 너무 저조하다. 또한 교육 목사를 두고 교육하는 교회도 설교를 하고 심방을 하는 일 등과 같은 일반적으로 교육목사가 해야할 일을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어 이러한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계획의 전반을 조직하고 감독하며 시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계획의 전반을 조직하고 감독하며 조정할 기회가 부족하다.[164] 교사를 임명하는 일에 있어서 평신도 중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교사 훈련과 깊은 연구도 없이 맡겨 버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어서 지

---

163) J.D.Smart,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Philodelphia:the west mininster, press,1954,p.73.

164) Ibid.

도자의 부족에 있어서는 질적인 문제와 숫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에 새신자 교육을 위해 교사를 구한다는 것은 더 더욱 어려운 일이다.

5) 재정적인 문제

65.9%의 교회들이 교육예산을 전 예산의 10% 이하를 설정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은 아직도 교육예산이 10% 이상되는 교회가 많지 않음을 측정할 수 있다.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교회교육 예산 이라고 하면 교회학교의 비용 정도로 생각하며 교육비를 생산 없는 소모라고 생각하는 습성이다.[165] 그리하여 교인들이 바친 헌금이 교회건물을 짓고 비품을 사고 땅을 넓히며 교역자의 봉급을 지불하는 등과 같이 금방 눈에 보이는 일에 주로 재정적인 비중을 두고 있어 교육재정이 계속적인 빈곤을 겪고 잇는 실정이다. 만일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시도하려면 최소한의 시설과 예산이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단칸방의 예배당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개척 교회의 경우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막대한 예산의 투자가 새신자 교육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6) 교재 사용의 문제

성경공부 교재나 훈련교재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과 뜻이 담겨있게 마련이다. 그 교재를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가 있는지도 그 저자의 의도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별다른 검토도 없이 누가 좋다하니까 아니면 책 광고만 보고도 사용하는 경우를 보게된다. 그러니까 새신자 교육은 시작하자마자 마치는 격이 된다.

---

165) 감리교신학대학 한국선교교육연구원 편, 「교회교육 핸드북」, 대한 기독교 출판사,1977, pp.22-24

이윤진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현재 사용중인 성경공부 교재의 선택 동기를 신문광고를 보고 그 교재 사용 세미나에 참석함으로가 63%로 가장 많고 친구의 권유가 16%이었다. 그리고 그 교재를 연구 검토한 기간은 한 주간에서 3개월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었음을 볼 때 교재 선택과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166) 그러니까 시중에서 성경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다른 좋은 교재가 있다고 하면 쓰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교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어린 아기는 우유만 바꾸어 먹어도 설사를 하는데 영적 어린 아이인 새신자에게 어떤 말씀의 젖을 먹여야 하는가 심사숙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 내에 산재해 있는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였지만 새신자의 개인 성격 환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배경도 문제점이 될 수 있기에 게리.쿠네 박사가 제시한 문제점 10가지와 새신자가 양육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가족을 전도하는데도 문제가 되는 동양적인 문제 몇 가지를 소개한다. 167)

(1) 게리 .쿠네 박사가 제시한 10가지 "개인적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이란 책을 저술한 게리 .쿠네 박사는 새신자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68)

① 새신자 교육 문제로 당신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문제
②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가 없다는 문제
③ 그의 생활에서의 죄 때문에 계속되는 문제
④ 미숙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의 문제
⑤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를 꺼리는 문제
⑥ 믿음이 약하거나 자유주의 교회에 출석하는 문제
⑦ 완고한 가정과 친구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문제

---

166) 이유진, "지역교회에서 새신자 양육에 관한 커리큐럼 연구", 미국 루이지아나 침례 대.학교 신학대학원 1996, p. 43.
167) 금병달 외, "가족 전도", 서울: (주)아가페 서원, 1995, pp.151-348.
168) 게리 W. 쿠네, 「개인적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78, pp.129-153.

⑧ 새신자를 양육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문제
⑨ 강력한 지성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문제
⑩ 어떤 의심이 나는 교리 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면에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문제

2)동양적인 사고의 문제
① 제사 문제
② 헌금 문제
③ 통성 기도 문제
④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문제
⑤ 천주교에 대한 문제
⑥ 교회에 자주가야 하는 문제
⑦ 주·초에 대한 문제
⑧ 다른 종교에 대한 문제
⑨ 주일의 행사 문제
⑩ 불신자가 더 잘 사는 문제

3. 새신자 교육의 개선점 모색

새신자 교육의 중요성을 통감한 영적 지도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부딪히는 원인들을 분석한 결과 앞에서 제시한 문제점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새신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져야 한다. 예수님은 자라나는 곡식의 비유(마13:13)나 사도 바울의 교훈속에서(엡4:13)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자라야하는새로운 교육 설정 성장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 이와 같은 교훈과 오늘과 같이 폭발적인 지식 증가와 급변하는 환경에서 그날 그날의 새로운 지식을 필요로 하며 사는 우

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고 그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하여 교육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급한 교회학교 장년부 교육의 필요성을 교육자들이 "설교" "성경공부" "기도회" "구역예배" "부흥회" "헌신예배" "세미나" "간증 집회"등……. 기회가 있을때마다 장년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참여하도록 자극을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교회의 실정에 맞는 적합하고 합리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 지속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1) 교육 시설의 개선점

교육관이 있는 중, 대형 교회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교육관이 없는 작은 교회에서의 교육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개선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칸막이를 사용하거나, 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한다. 또한 저녁예배, 삼일예배, 금요철야예배 구역예배, 권찰회, 전후를 이용하거나 다른 날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이것마저 어려울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로부터 가까운 믿음 성도의 좋은 가정집을 열어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새로운 조직체계

교회는 많은 부서가 있다. 만일 통합을 한다면 새신자 교육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게 된다. 만일 독립 부서로 두고 운영을 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재정문제나 인력 수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새신자 교육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담임 목사의 주권 아래 독립부서의 체제로 운영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

은 방법이 될 것이다.

3) 새로운 지도자의 문제

새신자 목회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은 지도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가르침이 성숙한 신자가 되어 다른 영혼들까지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시간이 없어 몰려드는 새신자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다.

일찌기 카토릭에서는 대부, 대모제도를 가짐으로서 교육에 많은 성과를 가져오는 좋은 방법을 갖고 있다. 아직 미숙한 신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신앙을 돌보아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의 방법으로 적용시켜 만들어 낸 것이 양육위원 제도이다. 그 동안 새신자 목회에 대하여 누구도 못지 않게 고민하면서 찾아낸 것으로 지금까지 시도한 어떤 방법보다 이 교육위원 제도가 가장 새신자 목회를 위하여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169)

그런데 문제는 새신자들의 경험과 교육 정도 또는 종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도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삶의 환경에 따라 결코 한 가지 방법으로 지도하기에는 어렵다. 다시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와 도움이 있어야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모든 일을 목회자가 감당할 수 없기에 유모와 같이 한 사람씩 감당하여 돌보아 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바로 교육위원이다. 새신자 교육의 성패를 짊어지고 있는 분들이다. 그러므로 교육위원의 선발은 오랜 훈련(교육훈련, 영성 훈련)을 통해 목회자와 함께 시간과 물질과 정열과 사랑을 쏟아 부어 돌볼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

169) 이용안, "새신자 목회에 있어 필수적인 양육위원 제도", 새신자 목회 Ⅲ, 1994, p.10.

4)재정의 확보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시도하려면 최소한의 시설과 예산이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개척 교회의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예비비 및 다른 부서의 도움을 청하고 전 교인을 상대로 새신사 교육만을 위해 헌금을 하여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다.

5) 새로운 교재 개발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존에 나와있는 선교 단체의 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하고 있거나 대형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공부 교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생각해 볼만한 여지가 있다. 이 교재들은 선교단체를 위하여 또는 집필한 교회를 위하여 만든 것이지 새신자 교육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참조는 할 수 있지만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이 걸려도 담임 교역자가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교회의 특성에 맞게 또한 새신자 만을 위한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어 체계적으로 실시한다면 교재 사용의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본다.

그외 흔히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상담은 목회자가 직접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므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신도를 교육하고 훈련하여서 지도자로 세워 일대일 또는 집중의 원리를 사용하여 돌아보며 평신도 지도자가 어려움이 부딪치는 일들은 교역자가 강의나 설교 가운데 성경적으로 언급하여 주어 스스로 해답을 얻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교회는 양적인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으로는 기대 이상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 결과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성장의 정체 및 둔화로 쇠퇴기에 들어섰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발하는 영적지도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신자 교육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본 연구도 이러한 취지에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1. 요약

기독교 교육은 유대인의 교육 토양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170)

효시는 유대인의 어린이 교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약시대의 어린이 교육은 주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행해졌다. 이스라엘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를 참 신앙인으로 교육할 책임을 지고 교육했다. 171)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시대적으로 자녀 교육의 방법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족장시대의 교육: 자연적이며 비형식적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했으며 교육의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광 야 시 대: 교육방법은 족장시대와 다를 바 없으며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 교육의 핵심이 되었다.

포로 이전 시대 : 어린이 교육과 장년교육으로 나눈다. 어린이 교육은 부모들의 중심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며 교육내용으로는 율법교육, 생

---

170) Werner C. Graend, op.cit.,p.30.
171) J.D.Smart,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윤철 역, 대한 기독교서회, 1980, p.60.

활교육, 민족교육이었다. 교육방법으로는 온 가족들의 공동으로 생활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잠언, 전도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등의 내용을 가정에서 구전으로 전하였으며 종교의 의식에 의해 교육하였다. 장년교육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교육은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포로 이후 시대 : 정치적 상황속에서 외세와 타협하는 그룹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룹이 나타났다. 후자는 토라가 그들의 중심이 되었고 성전 중심과 회당 중심의 교육이 나타난다. 회당에서는 친교와 예배, 성경공부를 통하여 신앙교육을 했다. 또한 교수 방법으로는 성경봉독, 율법강해, 요절암송, 율법교독, 문답형식, 비유와 상징법 등이 있었다.

새신자를 보다 정확히 알고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의 주체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 특별히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가까이 두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를 중심으로 새신자 교육의 흐름를 찾아 보았다. 예수의 교육목표는 첫째가 영혼구원이요 둘째가 구원 받은 신자의 품성과 생활을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며 셋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 예수의 교육방법으로는 첫째 : 생활의 본을 통한 교육, 둘째: 생활현장에서 자유롭게 교육, 셋째 :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하여 교육, 넷째 : 생활의 부딪치는 경험을 통해서 교육, 다섯째 :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함께 생활하심으로 교육, 여섯째 : 개인의 영혼에 관심을 집중시키시는 교육, 일곱째 :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교육, 여덟째 :영적 성숙의 단계에 따라 교육, 아홉째 : 개인 상담을 통한 교육, 열번째 : 훈련된 제자들을 통하여 교육 사도시대의 새신자 교육은 사도들이 새로 믿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들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쳤다. 둘째 :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르쳤다. 셋째 : 박해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기르도록 가르쳤다. 넷째 :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

르도록 가르쳤다. 다섯째 :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르쳤다. 여섯째 : 제자화하기 위해 가르쳤다. 그리고 교육 방법은 대체로 토의 형식과 서신을 통하여 교육했다.

사도이후의 교회시대는 교육의 발전으로 인해 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했으며 3세기에는 정규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 남녀노소, 국적을 초월하여 세례 예비생들이 입학할 수 있었다. 교육내용으로는 캐리그마와 디다캐 카테키시스와 이교문화에 대한 도전이다.

새신자 교육에 있어서 신약시대의 교회와 현대교회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비교하여 차이점 (변화와 발전)을 보았다.

한국교회의 새신자 교육은 1886년 1월 이화학당에서 여성 15명이 모여 성경공부를 한 것이 새신자 교육의 시작이었다. 그 후 새신자 교육은 지도자와 시설의 부족으로 예배시간 한 시간 전에 교회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았으며 한국교회 상황에 맞추어 사경회를 통하여 훈련과 지도자를 배출하게 된다. 교육내용으로는 1905년 만국통일공과 1933년 미국의 만국통일공과를 번역하여 사용, 1937년 통일 공과를 펴냄. 1970년 각 교단마다 공과를 제작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매년 제작하여 공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새신자 교육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의 새신자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결 론

한국교회 교육적인 사명보다 선교적인 사명에 충실하여 양적인 성장은 있었으나 질적인 성장이 적어 그 결과 성장의 둔화 및 저하를 가져왔다.

특히 그 원인을 새신자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하여 본 논문은 먼저 새신자교육의 이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한국교회 새신자 교육의 실질적인

면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성서 속의 새신자 교육은 구전으로도 습득할 수 있는 내용과 온가족이 참여하여 생활속에서 배우는 제의식등 그 방법이 단순하다. 교육장소로는 가정, 성전, 회당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장년들의 교육은 선지자, 예언자, 랍비, 연장자들이 주로 하였고, 어린이 교육은 부모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과거 교회의 새신자 교육도 내용이 단순하였다. 교재는 성경책이었으며 교육내용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교훈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이다.

교육방법은 바울 중심의 소규모 사역인 일대일의 교육을 채택 오늘의 교회가 있도록 역사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새신자 교육은 비교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내용이 복잡하다. 교재도 과거 교회와 달리 성경책보다 선교단체의 성경공부 교안이나 그 밖의 다른 교재들을 사용하므로 교재와 훈련된 지도자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교회는 모든 교육의 중심이 담임교육자에게 집중되어있으므로 담임교육자의 개혁없이는 불가능하다. 선교 2세기를 출발한 한국교회가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육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먼저, 목회 방향의 우선 순위를 새신자 교육에 두고 성서 속의 새신자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참고하여 우리 교회에 평신도 지도자들을 배출하여 맡기고 과거 교회(바울 중심의 소규모 사역)와 현대교회(베드로 중심의 대규모 사역)를 병행할 때 이루어 질 것이다.

참고 문헌

1.국내문헌

감리교신학대학 한국선교교육연구원 편,「교회교육 핸드북」,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77.

게리 W. 쿠네,「개인적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정학봉 역,서울:요단출판사,1978.

게리 W. 쿠네,「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 서울요단출판사, 1978.

고현봉, "교회성장의 길",복된 말씀, 20권 3호,1973.

금병달 외 "가족 전도" , 서울: (주)아가페 서원, 1995.

곽안전, "한국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3.

교육학,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4.

김동호, "새신자 관리와 육성을 위한 교회행정", 교육교회, 1984년 3월호.

김명용, "신앙의 성장과 교리적 체계" 교육교회, 1986년 10, 기독교.

김성기,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실제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8.

김주현, 「Standard Engkist-Korean Dictionary」, 성문각, 1979.

김재은, "기독교 교육 교육과정의 변천", "신학과 세계" 17호,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1988.

맹용길, "한국교회와 교육", 서울: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1984.

민경배, "한국 초대 기독교의 교회 형태", 기독교사상, 기독교서회, 1974.

박영선, 「사도행전 강해 I : 초대교회 사람들」, 서울:도서출판 엠마오, 1994.

박무종, 「개인전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소망사, 1979.

반피득, "기독교 교육", 서울:한국개혁주의 신학협회, 1992.

성서 백과 대사전 제12권, 민영진 편집, 서울:성서교재 간행사,1982.
신동운, “효과적인 새신자 양육을 위한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신학대학원, 1989.
신학교재 편찬위원회,「 간추린 기독교 교육학」, 세종문화사, 1983.
오인탁외 4명, 「기독교 교육론」,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84.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서원 출판사, 1984.
유의웅 「새신자 목회의 실제」, 새신자 목회Ⅱ, 이용남편, 서울:도서출판 임마누엘미디오, 1993.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대한기독교서회,1976.
이상남, “교회성장을 위한 새신자 육성방안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9.
이용남, “새신자 목회 세미나 1-8회”.
이용남, “새신자 목회 Ⅳ”, 1995.
이용남, “새신자 목회에 있어 필수적인 양육위원 제도“ 새신자 목회 Ⅲ, 1994.
이원희, “기독교 교육의 시설과 교재의 문제점”, 기독교 교육,1975,9.
이유진, “지역교회에서 새신자 양육에 관한 커리큐럼 연구”, 미국 루이지아나침례대학교 신학대학원, 1996.
이은봉, “한국교회 새세기 맞다.” 월간 정경문화, 1984, 2.
임은환, “새신자 양육을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신학연구원, 1992.
이형기, " '율법과 복음', 그리고 '복음과 율법' - 루터와 칼빈을 중심하며”, 장신 논단 제6집, 1990.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장신출판부, 1988.
정동성, “기독교 교육개선”, 서울: k.c.c.e. , 1997.
정원식, 「유대가정의 교육의 비결」, 서울:샘터사,1997.
정정숙, 「기독교 교육과정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부, 1980.
정학봉, 「성서적 제자훈련학」, 서울:요단 출판사, 1985.

요한 칼빈, 「기독교 강요」, 제4권, 김문제역, 혜문사, 1984.
웨이론 B. 모어,「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정학봉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75.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대한 기독교서회, 1976.
천정웅, 「교사이신 예수님」, 서울:지혜문화사, 1983.
최경락, "한국 교회학교 장년부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부천:서울 신학대학 대학원,1980.
황선호, "새신자를 위한 기초양육 과정",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4. 한국대학생 선교회, 민족복음화 요원 훈련교재.

2. 국외문헌

Morton,A.w, "Education in Biblical Tims", in The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vol.2, ed. by M.C.Tenney,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1975.
Bill Hill, "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 박영철 역, 서울:요단출판사,1994.
어리트,C . B,「기본전도학」,정진황역, 서울:침례교회출판사, 1971.
Kuhne,Gary W, 개인적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역, 서울요단출판사,1995.
Brown,C. R, "These Twelve", New York: the century co.,1926.
McGavran, D.A & Arn. W. C, The steps for Church Growth,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1997.
David. Watson, 「제자도」, 문동학 역, 서울:두란노서원, 1989.
Dayton.Edward R and Engstrom.Ted W., 「성공적인 생활설계」, 서울 보이스사, 1979.
Kuhne,Gary.W, "The Dynamics of Discipleship Traing", Grand Rapids, Zondervan, 1980.

Horace Bushnell, "Christion Nurture", New Haven : Yale Vniversity, 1888.

Horlin,Swingam, 베델성서연구, 서울: 컨콜디아사.

Marquis,J.A, "Learning to teach from the Master Teaher", Philadephia : Westminster press.

Smart,J.D,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Philodelphia:the westmininster, press,1954.

John Calvin, "사도행전", 성경출판 위원회편, 서울:성서교재 간행사, 1980.

Smart,J . D ,「 교회의 교육적 사명」, 장윤철 역, 대한기독교서회, 1980.

Gary,Kuhnue.W, 「개인적 새신자 양육의 원동력」, 정학봉 역, 서울요단 출판사 1995.

Lewis Joseph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ew York: Macmillian co,1994.

Lewis sherrill, "The Rise of christian Education", N.y : Macmillian co,1994.

Leloy Eims, "The Lost Art of Disciple Making", Gromd, Ra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1.

Louis Berkhof, 「벌코프 조직신학(상)(하)」, 권수경.이상원 역,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Neil Brown, "Laity Mobilization", Chicago: Moody Press,1980.

Ron Jenson & Jim Stevens, 「Pynamics of Church Growth」,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1.

Glover,T. R, "The Jesus of History", New York: H. Porn Co.,1917.

The school of Faith : "The catechisms of The Reformed Church, tr E.ed.by torance.Thomes F, London: The Retorned Church, E.ed.by Thomes F.torance,London: The camelot Press, 1959.

Moore,Wayon B, 「새신자 양육의 원리와 방법」, 정학봉 역, 서울:요단 출판사 1975.

Eramam,W. C, "Bible Classes and Bible Institutes", pamplet NO.10, No. 12, December, 1914.

ABSTRACT

A Study on the betterment plan of the new believers' education of the Korean Church

Kim, Sang Ki
Major in Education Administration
Dept. of Education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 Sung University

There have been growth in the Korean church quantatively by faithfully fulfilling the missionary work rather than fulfilling the educational mission in the Korean church. Thus it brought a marked lowering and dullness in the growth of Christian education because of lowering the qualitative growth.

Especially, I thought the reason is the absence of the new believers' education, so I placed the focus on the theory of the new believers' education first in this study and tried to seek a substantial phase of the new believers' education in the Korean church.
The new believers' education in the Bible is simplified by learning the method and content from the ancient code of law and various ceremonies etc. that are to be learned in our living by participating with the whole family.

The education centers were composed of home, church, and tabernacle in early church and the prophets, rabbis, and elders mainly educated the adults for the new believers' education. The children's education

were made by their parents. The contents of the new believers' eduation in the past church were simplified by the gospel of God and the kingdom of God as the teachings of Jesus Christ using the Bible as teaching aids.

The educational method is adopted by using a man to man education as the small scale missionary work with the preaching of St. Paul as the central figure, and thus there have been formed the Korean church of today. But the contents of the new believers' education in the Korean church are complicated in the following study of comparison.

The teaching aids such as teaching program of the Bible study and other teaching aids are used by the missions other than using the Bible of the past church. It is impossible to teach the new believers without having the good teaching aids and trained Sunday School teachers.

Without reformation of the teacher in charge, it is impossible to teach the new believers in our Korean church completely because the heart of all the education in the Korean church is concentrated upon the teacher in charge of Sunday School class.

As a starting point of the 2nd century of missionary work, it is necessary to make a definite decision of the teacher in charge of Sunday School class to have the 2nd revival era.

First of all, to give the right of preference of the pastoral direction to the new believers' education, referring to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new believers' education in the Bible, our Korean church must produce a large number of Sunday School teachers as laymen and

entrust this missionary work to them, and thus we can achieve our purpose of the new believers' education by running parallel with the past church(a small scale missionary work centering around the preaching of St. Paul) and the modern church(a large scale missionary work centering around the preaching of St. Peter).

감사의 글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며 지난 5학기 동안 좋은 가르침으로 학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본 논문을 완성함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하며 심도있게 지도해주신 조점환 교수님께와 구술 시험을 통해 조언을 해 주신 하인호 교수님과 김경배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격려 해 주시고 기도로 도와 주셨던 호산나음악사의 김창현 집사님과 이상영 권사님께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논문의 탈고를 도와 주었던 동생 김정애·김순애와 한복년 전도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감사의 조건들을 나누어 주신 분들에게도 감히 진보를 약속드립니다.